眞理 正義
自我 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瀅玉 주 간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尙繁
발 행 소 : 제주대학교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 (직) 54-2278·2279
인 쇄 : 한 라 일 보 사

제432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1년 11월 5일 화요일 1

92학년도 신입생정원 조정 발표

중문학과(신설)등 54개학과 1,920명 모집

예체능계열 부정방지위해 입시전형방법 대폭 바꿔

지난 10월28일 확정·발표된 '92학년도 우리학교 신입생모집 요강에 의하면 올해는 54개학과 1천9백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인문대학에 30명 정원의 중어중문학과가 신설되고,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정원이 10명 늘어남으로써 지난해 신입생 모집정원 1천8백80명 보다 40명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신입생모집 요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방법에 있어서 복수지원 및 인문·자연·예체능 계열간 교차지망은 할 수 없고, 각 계열에서 동일계열의 학과만 제2지망까지 할 수 있다. 사범대학 각 학과를 1지망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범대학 및 타대학 동일계열학과를 2지망으로 할 수 있으나, 비사범대학 각 학과를 제1지망으로 하는 자는 사범대학 각 학과를 제2지망할 수 없다.

전형방법에 있어 성적반영 비율 및 배점은 일반학과의 경우 학력고사 성적 70%(3백40점), 고교 내신성적 30%(1백45.7점)로 작년과 같고, 예체능계열학과(음악, 미술, 산업디자인)는 작년과 달리 실기고사성적을 5% 줄인 35%(1백70점), 학력고사 성적이 5%늘어난 35%(1백70점), 고교내신성적 30%(1백45,7)로 조정됐다.

성적반영비율 및 배점 이외에도 예체능 계열 학과의 입학전형은 다른대학의 입시부정 사건등의 영향으로 그 지침이 강화, 변동사항이 많아졌다.

실기고사시의 변동사항을 알아보면 △평가위원:5인 이상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수로 하되, 타대학 교수가 1/2이상 참여토록 했으며 △평가방법 및 관리:충분한 실기평가 시간을 부여하고 평가자료를 녹음, 녹화등을 통해 졸업시까지 보존 △평가시기:학력고사전(91년 12월10일~13일)등이 있다.

또한 음악학과의 경우 현악전공은 예년과 달리 악기별로 세분해 바이올린 5명, 비올라 2명, 첼로 2명, 콘트라베이스 1명씩을 모집하고, 산업디자인학과도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산업공예로 나눠 전공별로 모집키로 했다.

특별전형에 있어서 야간강좌부 산업체근무자 특별전형이 입학정원 20%에서 30%로 확대됐고, 체육특기자는 체육학과 정원이 10명 증원된 관계로 1명이 늘어난 16명, 일반학과 체육특기자로는 야간강좌부 법학과 1명, 회계학과 1명 총 18명의 체육특기자가 특별전형을 받게 됐다.

그외에 변동된 사항으로는 신체검사시 색맹검사 대상학과가 미술학과, 과학교육과(생물교육 전공), 농학과, 원예학과, 농화학과, 수의학과, 식품영양학과, 해양과학대와 공과대의 전학과로 축소됐다.

한편 신입생 모집에 관한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원서교부:11월19일~25일(정문 수위실)

▲원서접수:11월21일~25일(제1지망학과 소속대학)

▲예비소집:12월16일 오후1시(제1지망학과 소속대학)

▲실기고사ㅡ체능계:12월19일~20일(운동장 및 체육관) 예능계:12월 10일~13일(관련 강의실)

▲합격자 발표:12월 30일 이전

'학생의 날' 기념식 총학서 갑자기 취소

제62회 학생의날을 맞아 총학생회(회장 위성곤 원예4)에서는 투쟁사진전을 비롯한 각종행사를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갖는다.

11월4일부터 8일까지는 '압제가 있는 곳에 저항이 있었고 저항이 있는 곳에 젊은 사자처럼 달려나가는 청년이 있었다'는 주제로 91년 각종 투쟁사진 50여점을 민주광장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오후12시에는 '어머니! 절 믿어줍써'라는 학생의날 기념마당극 공연이 탐라민속문화연구회주관으로 민주광장에서 1백50여명의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11월3일에는 간부체육대회를 갖고 1년의 사업을 총화해 내는 계기로 삼았다.

한편 11월5일 오후3시부터 민주광장에서 '특별법 저지, 민주 정부 수립의 당찬 선봉꾼 청년아라 학생의날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

11월중 학사일정

△석사학위 청구논문 본심사=4일~9일 △92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11일~16일 △박사학위 청구논문 본심사=11일~16일 △학생자치기구장 선거=6일~8일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완료.

특별법 저지 농성에 돌입

3일부터 민주당 제주도지부에서

한석지교수등 범도민회대표 상경투쟁

지난 11월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성백인회관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정반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고희범·41)주최로 결의대회를 가지는 한편, 제주도개발 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에서 지난 11월3일 오후 7시부터 민주당 제주도지부에서 무기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에 파견된 한석지(사회교육과)조교수를 비롯한 범도민회 공동대표 9인은 이날 오전 8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2일 '반도민적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정반대 서울지역 결의대회'에 참여, △11월4일 '당정협의회'에서 민자당 항의투쟁 △민주당 당론확정 여부 확인과 의회투쟁 촉구 △전국적 대중조직과 연대의 틀 마련, 특별악법 저지투쟁을 강화·확산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제62주년 학생의날 계승 및 민중대회 사수와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11월2일 한양대에서 열려 우리학교 사범대학학생회가 특별법 저지투쟁에서 모범적인 투쟁을 벌인 사실이 인정돼 전대협으로 부터 단과대 모범상을 수상했다.

기숙사 주제로 설문조사 총여학생회서

10월4일부터 총여학생회(회장 김보선 주교4)에서는 3천5백 여학우들의 여학생 기숙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여학우들사이에 여학생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실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기숙사에 대한 총9개 항목의 질문을 여학우들에게 하고 있는데 다음주 중에 설문지가 수거되는 대로 그 결과를 분석해 여학생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으면 김형옥 총장등 학교당국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서및 복사기기증 문대탄기성회부회장

기성회부회장인 문태탄씨가 지난 5월에 해양대 어업학과에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을, 8월에는 동아시아연구소에 2백만원 상당의 복사기 1대를 각각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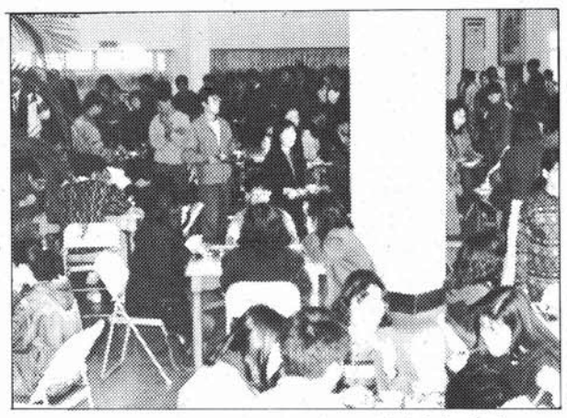
고 침 지난 10월29일자(제431호)기사 중 잘못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1면 선거기사 중 인문대 입후보자 기호 맞바꿈 △기호1번 정:윤미은 (사회3) 부:김태영(영문2) △기호2번 정:김유경(국문3) 부:김영두(미술3)으로 바로잡음. 여학생회장 입후보자 이영심(국교3)→국문3 ▲2면 대학평가제 대상학과 실태 기사의 (표) "'90제주대학교 연보" →"'91제주대학교 연보"

□기숙사 식당 수용시설 확충시급

점심때 천명이상 몰려드나

앉을 자리, 백60석에 불과



◇기숙사식당 이용자는 하루평균 2천여명에 이르는데 좌석등 시설부족으로 식판을 받아든 학우들이 자리를 찾느라 헤매고 있다.

학생기숙사(백록사, 사감장 김철원교수 체육학과) 식당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현재 1백60석에 불과한 식탁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기숙사식당 이용자수가 기숙사생 2백20명을 비롯해 인문대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까지 포함하면 하루평균 1천5백~2천명선을 넘고 있는데 비해 이를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시설이 너무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대 이용시간이기도 한 점심시간인 경우에는 식판을 받아든 학우들이 앉을 자리를 찾느라 헤매다니는 것이 기숙사식당의 진풍경이 된지 이미 오래다.

이처럼 기숙사식당의 이용자가 많아진데는 지난해보다 식단의 질이 많이 개선돼 굳이 구내식당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 것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구내식당보다 식단질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숙사식당 이용자수가 지난해 하루평균 5~6백명선에서 올해는 3배까지 늘어난 이용자수에서도 알 수 있다.

거의 기숙사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국문과 3학년 두여학우에 따르면 "식당이 깨끗하고 밥과 찬의 내용이 좋다"면서 "어떤 학우들은 자리가 없어 밖에 식판을 들고 식사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본 적이 있다"고 말해 식탁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두학우의 말처럼 기숙사식당을 이용하는 학우들은 점심시간대에 부득이하게 생존경쟁(?)을 매일 치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내고 있다. 힘들여 줄을 서고 식판을 받아들기는 했으나 많은 사람들 틈에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 먼저 식사중인 학우들이 자리를 빨리 비우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학우들은 아예 식판을 들고 나가 밖에서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경우도 기숙사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기숙사측에서 식당의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백20석 규모의 식탁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숙사 식당은 좌석을 더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용자들은 "왜 좌석이 부족한데도 빈공간을 활용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측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식당운영에서 얻은 수익금으로는 식탁 및 설비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학교당국에서는 기숙사식당이 특정수혜 대상학생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워 지원면에서 관심이 부족하다"는게 기숙사측의 얘기다.

박전촌(행정주사)과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구내식당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축중인 학생회관이 완공돼 식당운영이 되는 92학년도 말까지는 이의 해소를 위해 일반학생들의 이용을 개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식당시설이 부족해 확충을 위해서는 기성회계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숙사측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사생자치에 의해 식당운영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일반학우들에게도 이용을 개방하게 된다.

현재 기숙사식당이 일반학우 및 교직원들에게도 이용이 개방돼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후생복지에 대한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다.

【양원철 기자】

돌하르방

정부는 왜 농민만 못살게 만드나

농민에 대한 사형선고! 정부의 쌀 수매값 7%인상, 7백50만섬 수매 결정은 그야말로 농민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흔한 시셋말로 '심하다'라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심한 쪽은 오히려 정부측이다.

정부는 작년 수매가를 일반벼 10% 통일벼 5%를 올리고 수매량을 각각 3백만섬, 4백50만섬등 모두 7백50만섬으로 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벼 2백50만섬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매하는 대신 산지값과 수매값의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차액지급제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벌써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9%를 웃돌고 있는 악조건이 보태졌는데도 일반벼 수매값 7%인상(통일벼 동결), 7백50만섬(농협수매 1백50만섬 별도)수매를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의 '16%인상, 1천만섬 수매'와 농협중앙회의 ''15%인상, 1천1백만섬 수매' 요구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제조업 임금인상률 16·8%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이런 실정이고 보면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추수총파업'을 단행한 것도 의외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올 3월에도 농어촌대책당정회의를 열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해 정부가 수매값과 양을 결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만 지난 10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자당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말아오던 양곡수매를 농협으로 넘기고, 정부는 양곡수매에 따른 농협의 결손을 보전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만 봐도 추곡수매로 야기되는 농민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수습하려 하기보다는 불만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속셈만 가득함을 알 수 있다.

이촌향도·물가불안·쌀 소비 감소·정부지원예산 감소·작목전환·부채증가·비관자살 등으로 대변되는게 농촌현실이다. 여기에 미국의 쌀시장 수입개방 압력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니 농민이야 말로 저곡가에서 오는 불이익과 수입개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동시에 겪어야 할 '수난시대'를 맞아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등 농수산부문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통해 92년부터 2천1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중장기 대책으로서 농어촌에 총42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가하면 10월18일자 『민주자유보』(민자당당지)에서는 "쌀과 보리수매에 따른 양특적자지원, 농어촌부채경감 특별조치등에 따른 이차보전등 소득보상적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생산적 투자를 위한 투융자사업비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는등 병 주고 약주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농업기계화와 시설현대화·영농규모확대를 위한 지원·경지정리보다는 추곡수매값 인상과 수매량 확대·쌀 수입개방압력의 완화가 농민에게는 더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적자·증시파동등에 대해서는 발빠른 대응을 하는 정부가 "강한 수입개방 압력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저자세로 농민의 뒷덜미를 치는 것은 '심한' 불공평이므로 정부는 농민에 대해 내린 '사형선고'언도를 이유없이 기각시켜야만 할 것이다. 【甲】

'92 漢拏年鑑 編纂中…
道民의 協助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漢拏日報에서는 지난 4월 「'91漢拏年鑑」을 발간하였사온데 그것이 道內言論界에서의 첫 試圖란데서도 그렇고 내용이 充實하다는데서도 道內外의 讀者로부터 상당한 好評을 받아 再版까지했습니다。이는 오로지 道民 여러분께서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德이라여겨 社員一同이 感謝하고 있사오며 그 뜻에 呼應코자 「'92年 漢拏年鑑」의 編纂에 着手했사오니 繼續的인 聲援있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主要內容

⊙'91年 國內外主要日誌 및 畫報⊙
▲第一篇 總覽
△概況 △政治·行政·司法 △經濟 △產業 △建設 △社會 △敎育 △文化 △體育 △宗敎 △交通·運輸 △觀光·레저
▲第二篇 特輯
△濟州의 歷代 縣監、牧使 △地下水 涵養과 保存
▲第三篇 道·市·郡政
△濟州道政 △濟州市政 △西歸浦市政 △北濟州郡政 △南濟州郡政
▲第四篇 便覽
△道內機關團體 △海外道民團體 △主要受賞者 △主要統計
▲第五篇 人名錄
△國內人士 △海外人士

아낌없는 協助를 바랍니다。

「92年 年鑑」에는 道內外 特히 外國에 나가계시는 本道出身 人士들의 人名錄과 在外道民團體現況들을 보다 깊이있게 收錄할 계획이오니 91年年鑑에서 漏落된 團體나 人士에 對한 情報를 下敎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人名錄에의 收錄基準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간부직공무원(事務官이상의 現職、書記官 이상의 退職者) ▲大學敎授、初·中·高校의 校長級 및 이에 準하는 人士 △司法·行政·技術考試合格자 △博士·醫師·藥師 기타 이에 準하는 學位나 資格證소지자 △領官將校이상의 現役·豫備役 △重要企業體의 專務理事級이상의 任員 △藝總등 公共團體에서 추천하는 작가·예술가·사회활동가 △그밖에 人名錄에 收錄되어야한다고 판단되는 人士등

漢拏日報社

연락처 : 〒690-031 濟州市 三徒1洞 568-1 한라일보 편집국 자료조사부 TEL. 50-2270 FAX. 52-9790

社說

학생회 존립 기반은 뭔가

대학의 학생회는 귀중한 역사적 성취물이다.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학도호국단 체제로 시작된 대학의 학생단체는 애초의 학도호국단의 애국운동이라는 결성취지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변질됨으로써 4·19의거를 통해 학생의 자치기구인 학생회 체제로 탈바꿈하였던 것인데 이는 단순한 제도적 개편이 아니라 4·19민주장정의 소중한 역사적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5·16으로 그러한 소중한 성취들은 왜곡, 변질되어 다시 학도호국단 체제로 변형되었고 그로인한 대학의 폐해는 참으로 극심한 것이었다. 지극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정치형태였던 유신체제는 학생들과 날카롭게 대치할 수 밖에는 없었으며 그 결과는 급기야 정치권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0년대 들어 역사적 대세로 부각된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다시 어렵게 쟁취한 학생회는 그러니까 1960년대 학생회가 견지하였던 민주화의 이념을 발전적으로 승계함은 물론, 현재 새로운 대학사(大學史)의 장을 여는 구체적 동인(動因)으로서 큰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입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매년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대표성을 객관화시키려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대학을 생산적으로 긴장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의 활력을 그곳에서 확인케도 된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무투표 당선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총학생회장과 일부단대학생회장이 일찌부터 무투표로 결정되어 초점은 단과대학 선거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향은 여러면에서 시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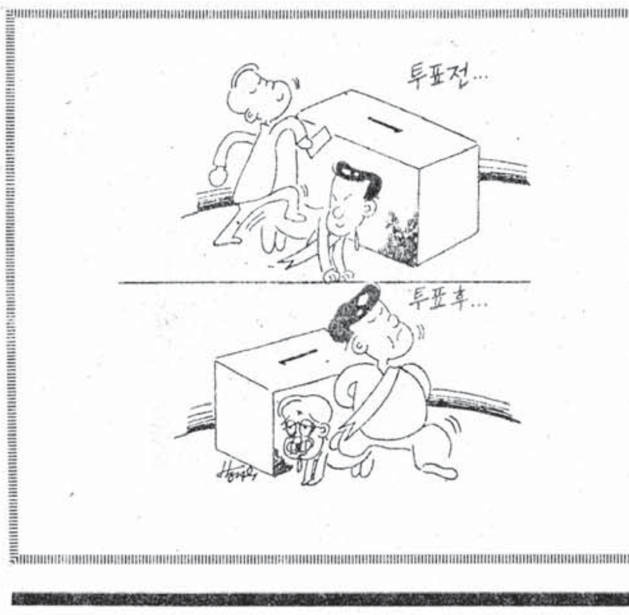
이렇듯 대학가 분위기가 급변한데는 최근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즉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빚어진 학생회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지지 상실과 그로인한 학생운동의 침체 양상이 그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대졸취업난 등의 현실적 고려로 비롯된 탈정치화 경향의 결과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고 이해가 간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이 나아가 학생회를 잉태시켰던 유토피아적인 이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즉 학생회 존립의 이념적 기반은 대학의 민주화라는 역사적 성취물인데 그러한 유토피아적 이념대신에 사실주의가 제공하는 현실적 사안에만 학생들이 전념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큰 것이다.

학생회가 창출했고 계승한 대학의 민주화라는 유토피아적 이념은 대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거의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좌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유토피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가 비판해야 하지만 사실주의가 제공하는 손쉬운 탈출은 금물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우리의 능동적인 관심거리가 되어야 하고 그 구성을 위해 마땅히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선거는 그러한 참여의 제일보가 될 것이다.

濟大漫評



□ 함께 생각해봅시다(3) — 교직원 정신교육

내용실속 없어…'마지못해'참석

교육주제 — 학교발전과 연결시켜야 좋을듯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신교육 및 특별경제교육이 매우 형식적이며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채 교직원들에게 참석에 대한 부담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직자 특별경제교육' '사무관리 실무교육' '정신교육 및 경제교육'등의 명목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교직원 교육은 올해들어 6차례 실시됐는데 사무관리·문서정리와 같은 실무교육은 2차례 실시됐으며 나머지는 정신·경제교육을 준 교육내용으로 삼고있다.

올해 실시됐던 교육의 제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13일:'91년 문서정리요령', 문서관리담당자 대상

△3월13일:'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정신·경제 및 시책교육

△6월12일:'5·28대통령 지시사항 실천을 위한 특별교육'(총장) '경제교육 및 직무교육'(사무국장)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안내'

△9월18일:'정신 및 경제교육'

△10월16일:'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주요사항교육'

△10월25일:특별경제교육—'소비와 국민경제'(경제학과 김태보교수)

내용에 따라 50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 실시되는 교직원 교육에 대해 총무과에서는 교육실시일보다 일주일정도 앞서 본부 및 각 단대·부속기관등 각급기관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불참자를 최소화하여 참석할 것'과 아울러 불참예정자인 경우에는 교육실시 전날까지 '교육불참 대상자 명단'을 작성, 통보해 줄 것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실제 교육에 있어서도 참석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참석을 했다는 표시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직원교육은 참석여부에 대한 강제적 성격뿐만 아니라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있는데, '특별경제교육' '정신직무교육'이라는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실제 내용은 실속이 없고, 정부시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의견이 높다.

지난 10월25일 오후 2시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특별경제교육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였다.

1백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와 국민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은 일간지를 꾸준히 읽어 왔거나 그쪽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이들이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었던 평이한 내용이고 보면 굳이 '특별경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무에 바쁜 교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배부른 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것과 같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강의를 듣는 교직원들의 태도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껌을 씹거나 졸음을 애써 참고 있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는 '공문으로 전달된 지시이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인식과 마지못해 참여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반영한다 하겠다.

이에 대해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교직원교육이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유로운 의사로 참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라는 일정한 제약이 있기 때문인지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교직원은 거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교직원교육의 대상 교직원수는 약 3백70여명으로 이중 평균 1백여명 정도만이 참석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석한 교직원들의 대부분이 교육내용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한 채 '의무상 참석해야 할 자리'로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교육' '특별경제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경비와 시간의 낭비이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전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흥미와 관심의 유도보다는 따분함만을 가중시키는 현행 교직원교육의 실시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직원 정신교육은 학교의 행정적·교육적 측면과 연계를 가지면서 학교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희갑기자】

□ 연병장이 놀고 있다

4년전부터 방치…잡초만 무성

학군단측 '시설없어 사용안한다'

학생군사교육의 제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4동뒷쪽 언덕에 만들어진 연병장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황성옛터를 연상케하고 있다.

당초 이 연병장은 1982년 용담캠퍼스에서 현재의 아라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학군단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1983년 당시 연병장을 만드는데에 있어 1천8백㎡의 대지에 총 2천4백8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고 시설과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그후 1987학년도까지 교련교과목 실습장등으로 간혹 이용됐으나 그나마 교련교과목이 폐지된 1988학년도부터는 거의 사용도 않고 관리조차 이루어지지않아 연병장 설치이전의 상태와 별다름이 없게 돼 버렸다.

학군단 교무과장(해군대위 고석부)은 왜 연병장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병장에는 학군후보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건물이 한채도 없고 또 학교측에서 학군단사무실 건물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그곳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며 연병장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학군단은 단독건물이 없어 체육관지하에 6개의 사무실과 2개대학(경상대, 4동) 5개 강의실을 학교측으로 부터 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군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군단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공간문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라며 "그중에서도 후보생들이 교육받는 시간에 교내시위가 있게 되면 분위기가 산만해져 수업진행에도 차질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또한 "학생군사교육장소의 부재로 인해 ROTC학생들이 군사교육을 받는 모습이 일반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학생들 서로간의 이질감을 조성하게된다"는 그는 "4동 뒷쪽 언덕에 학군단 단독건물이 신축될 경우 ROTC학생들과 일반학생들간의 이질감으로 인한 불화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연병장 관리문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총무과의 한 직원은 학군단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학군단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얘기조차 하지 않고 그곳에 학군단 건물이 생겨야만 어떻게 하겠다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래 연병장이라 하면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운동장같은 넓은 곳이다. 그렇다면 학군단측에서는 연병장쪽에 독립건물이 하루빨리 마련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굳이 건물이 들어서야 사용 관리를 하겠다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탈피, 현재 연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학생군사교육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그래야 현재 매주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에 학군단의 연병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운동장도 진정 학교체육을 위한 대운동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ROTC후보생들의 훈련받는 모습도 어느정도 감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므로써 학교공간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종섭 기자】

◇잡초가 무성한 연병장

◇소각장에서 무더기로 불태워지고 있는 책상들

폐품기준 애매모호

조금 고장난 책상도 지하실에 쌓아둬
웬만하면 수리해 사용 예산절감해야

교내에 낡은 책상들이 일정한 공식경로 없이 불태워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29일에는 기숙사 뒷편 소각장에서 책상 30여개가 무더기로 불태워졌는가 하면, 이밖에도 강의실옆이나 복도등의 좁은 통로에 낡은 책상들이 방치되고 있어 공공기물 관리에 당국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책상이나 그외 물품들의 처분은 내용년수가 지나 수리한계를 초과하는등 파손돼 폐기처분 해야할 경우 각 대학 물품관리관에서 이를 파악, 경리과로 보내면 경리과에서는 이를 교육부에 불용품 승인을 받은 후에 처분되게 되어 있다.

이에 경리과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물상에 이를 매각했었는데, 현재는 철거비용을 요구하는 터라 처분이 곤란해 소각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의 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내다버리면 수리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원이 모자라 제때 수리를 할 수 없는가 하면, 수거를 제때 해가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각 단대마다 약50여개의 책상들이 수리를 요하거나 아니면 폐품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고장난 책상들을 보관할 지하실이라도 그나마 없으면 강의실옆이나 계단에 마구잡이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렇게 쌓아두는 책상들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되어 소각되게 마련인데 게중에는 보기에도 멀쩡한 것들이 섞여 있어 재원을 낭비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따라서, 현재 정확한 물품의 불용성을 확인하고 공식경로를 거쳐 폐기처분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가 하면 수리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수거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불용승인 품목에 올라가 있는 품목은 책상 281개를 비롯, 천여점의 물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은실기자】

식당·매점운영시간단축
11월1일부터 1시간씩

지난 11월1일부터 구내식당과 매점등의 운영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종전보다 1시간씩 단축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던 구내식당은 오후 5시30분까지, 도서관 매점은 저녁 8시에서 7시로, 대학내 각 매점은 종전 오후 6시에서 5시까지로 각각 운영시간이 조정되었다.

한편 기숙사식당은 종전과 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D팀 종합우승
교직원 체육대회서

도서관·대학원·부속기관 및 연구소·학군단 교직원으로 구성된 D팀이 지난 11월 2일 대운동장에서 치러졌던 '91교직원 추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축구, 줄다리기, 1천6백미터 계주 등 세종목에 걸쳐 진행됐는데 경기성적은 다음과 같다.

△종합우승:D팀 △준우승:A팀(본부부서팀) △축구 우승:A팀 준우승:B팀 △줄다리기 우승:D팀 △준우승:A팀 △1천6백미터 계주 우승:D팀 준우승:B팀(인문·법정·경상·사범대팀)

(주)시사영어사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주문 275 5258 FAX 271 0172

(주)시사영어사는 유익하고 좋은 책만을 발간합니다!

최신간! 안학사 TOEIC
4·6배판/1,036면 값15,000원
테이프 6개 문제집 1권 값33,000원
취직과 승진을 꼭 해야겠다는 분과 대학원진학은 물론 유학시험에 꼭 합격을 원하는 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본격적 TOEIC교재, 1,036페이지
안영섭 著

TOEIC 800점을 보장합니다!
TOEIC 800 대책시리즈 (전6권)
1권 경향과 공략법
2권 LISTENING 대책
3권 문법/STRUCTURE 대책
4권 WORD POWER 대책
5권 READING 대책
6권 IDIOM 대책
국판 각권 값 4,000원

대학원진학, 취직시험, 유학시험, 각종 고시준비는 이 6권으로 완결!
TOEFL 600 전략시리즈 (전6권)
1권 경향과 공략법
2권 LISTENING 전략
3권 문법/STRUCTURE 전략
4권 WORD POWER 전략
5권 READING 전략
6권 IDIOM 전략
국판 각권 값 4,000원

시사영어학습문고(전80권) 신4·6판 각권 값1,000원
英韓대역문고(전100권) 4·6판 각권 값2,500원

영어학습
영어시험에 강해지는 책(전8권)
영작문 전집(전9권)
영작문 연구
사례별 무역서한영작문
무역서한 사례연구
VOA·AFKN 영어방송 당신도 척척 알아들을 수 있다!
You Know What?(上·下)
나의 영어실력은?
당신의 영어적성을 테스트하십시오!
이 책한 권이면 영어신문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영어신문·잡지를 재미있게 읽는법
본고장 미국영어
미국 英語 이래서 재미있다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英語
Konglish (한국인이 잘못 쓰는 英語)
비즈니스 英語는 이렇게 하라!
비즈니스맨의 실용영어
관용표현의 유래

회화교재
SIDE BY SIDE (2/E)
SIDE BY SIDE
IN TOUCH
LIFE STYLES
STEP AHEAD
Welcome to English
New English Course
ENGLISH 900
New English 900

GRE·Vocabulary
Barron's G.R.E
Word Power 연구
Word Power Made Easy (주해판)
대학 Vocabulary
핵심 Vocabulary
정통 Vocabulary
종합 Vocabulary
김영로 Vocabulary
大入英語 고득점 Vocabulary 7주완성

일본어학습
Japan Foundation(日本외무성산하)이 개발한 日本語初歩(I·II)
카세트 테이프도 있습니다.
시사 일본어교본(上·下)
현대 일본어회화(입문·활용편)
순다이(駿台) 기초일본어
日本語質問箱 일본어 Q&A
알기쉬운 일본어관용구
일본어 경어표현
Kopanese
일본어 문법
시사 VIDEO 일본어회화
시사 일본어회화 카세트
시사 최신일어회화 카세트
현대 일본어회화 카세트
New Technology Japanese

이 책을 읽으면 세계경제가 보인다!
實話 세계의 큰손 노무라증권
"구멍가게에서 금융왕국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정상의 재벌 노무라 증권의 전설과 흑막
세계경제는 국경이 없다
경쟁시대, 도전에 준비하지 않는 자는 실패한다
일본의 권력구조
오늘의 日本을 알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
●새로운 現實
●페레스트로이카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88가지 비결
●일본이 세계경제를 삼키고 있다!
●왜 美国은 日本에 추월당했나?
●경제두뇌가 세계를 지배한다
(주)시사영어사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주문 275 5258 FAX 271 0172

□차기 정·부총학생회장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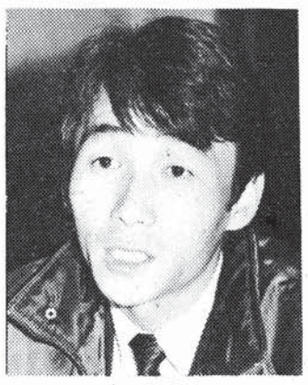
"학우와 함께하는 총학건설"

학원자주화·정치투쟁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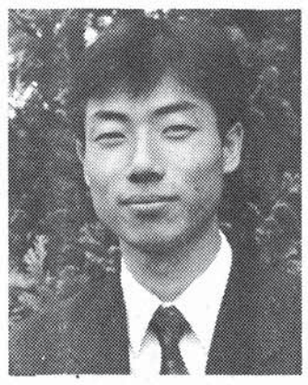
강의 평가제 도입 교과과정 개편에도 주력

'92학년도 정·부총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11월14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윤철수(무역 3)·홍상범(화학 3) 조만 입후보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에 본사에서는 '92학년도 총학생회장에 무투표 당선된 윤철수 학우를 만나 앞으로 주력할 학생회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학우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엮은이 씀】



정 : 윤철수



부 : 홍상범

▲정·부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확정됐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92학년도 총학생회 등록마감이 끝나고 막상 단독입후보임을 확인하고 보니까 내년 학생회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앞섰다.

경선이 됐을때 보다 학생회 사업추진이 더 힘들겠다는 압박감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92학년도 총학생회에 입후보하게 된 동기는.

—단대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는 것도 우리학교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단독 입후보 역시 처음이다.

학생회사업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생회가 계속적으로 강화·발전되기보다는 느린 속도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하게됐다.

내년도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올해 경상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총학생회처럼 반복되는 사업진행에서 탈피, 좀더 발전적이고 강화된 학생회를 만들고 싶어 입후보하게 됐다.

▲'85학년도 총학생회 부활이후 처음으로 단독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자가 됐는데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92학년도 총학생회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경선을 했을 때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계획된 대책방안은 모든 선거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정책토론회'를 가질 생각이다. 그리고 경선때보다도 두배, 세배 더 학우들을 많이 만날 계획이다.

▲올해 '91학년도 총학생회의 사업전반을 정치투쟁과 학원자주화투쟁으로 나눠서 평가해 달라.

—정치투쟁이라는 면에서는 몇몇 소수학우들의 투쟁이 아니라 기층학년단위의 학우들을 끌어올리는 투쟁사업들을 많이 준비한 것 같다.

학원자주화투쟁은 등록금문제와 소비조합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가져 온 것 같다. 그러나 학원자주화에 있어서 경험미숙으로 인해 오는 사전지식이 부족했다.

▲공약을 중심으로 내년 사업추진방향을 얘기해 달라. 또 중점적인 투쟁방향은.

—내년 사업은 학과학생회의 강화와 학년단위의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가능하다면 오는 11월과 내년 1월에 학과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간부학교나 간부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총학생회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학우들과 같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형태로 내년 사업들을 벌여나가겠다.

내년도는 총선·대선등 정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다시말해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4천만 민중을 독재의 야수에 굴림을 당하느냐는 기로에 놓여있다. 우리 청년이라인들이 대동단결하여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나아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내년도 '해방돌풍' 총학생회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학원자주화문제와 관련된 공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아울러 학교에서 전개하고 있는 발전기금모금운동에 대해 총학생회에서 동참할 생각은 없는지.

—학원자주화분야에서는 등록금투쟁이 가장 큰 것 같다. 타대학의 등록금 투쟁사례를 살펴볼 때 학우들과 같이 공동으로 벌여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각 학과학생회에서 제기된 필요교과목들을 수렴하여 학교측과 협의해 나아가겠다.

학교측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학발전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아직 크게 못해 보았다. 앞으로 잘 논의해 보겠다.

▲당선자의 노선이 NL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PD노선과의 융합이 잘되지 않아 '제학특위'가 발족되곤 했는데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제휴방안은 없는가.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제의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NL과 PD가 융합이 안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배타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우들에 대한 실천과정에서도 상호보완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 같다.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참여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치투쟁과 일상사업들을 올바르게 배합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학우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 같다.

지금은 잘 파악이 안됐지만 86년·87년에는 학원자율화투쟁으로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었다. 지금은 그 당시의 학원자주화투쟁보다 정치적 측면이 부각되어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다.

▲총학생회 사업들이 정치투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내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학우들이 인식하고 있다. 당선자들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학원자주화투쟁을 반독점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학원자주화투쟁을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데 단순히 복지차원에서의 사업이라해서 정치투쟁과 별개로 생각한다면 내년 역시 반복적인 문제밖에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학원자주화투쟁의 영역들을 현정권의 제도적 모순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명시할 때, 정치투쟁과 학원자주화투쟁은 동일시되어 실천돼야 한다.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 육지부 총학생회에서는 대학평가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사업계획은 없는가.

—중앙대에서는 학내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본 적이 있다. 앞으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

▲'92학년도 총학생회가 '해방돌풍'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 의미는.

—지금까지의 총학생회를 볼 때 자주적 총학생회, 민중민주 총학생회, 통일단결 총학생회라는 기치들이 각기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함축한 의미가 아닌가 싶다.

'해방돌풍'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학내의 모든 일들을 학우들과 함께 해 나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좀더 올바른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기치를 내걸었다. 즉, 승리에 대한 믿음들을 학우들에게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고 '92학년도 총학생회 사업들이 백전백승하는 강한 이미지를 주어야겠다는 의미에서 '돌풍'이라는 단어를 택하게 되었다.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들이 있는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전망들이 가시화됨에 따라 '입법저지투쟁'이라기 보다는 '도민생존권 보호'라는 측면으로 투쟁방향을 정해 나아갈 것이다.

자칫 특별법투쟁이 패배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도민생존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일부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정책들을 저지시켜 나가는데 큰 의의를 두겠다.

1997년도에 자유무역항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데 그 다음의 자유무역항은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특별법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추진된다고 판단,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속적인 특별법저지투쟁을 커다란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학기까지의 남은기간동안에 어떠한 준비들을 해나아갈 것인가.

—내년도에 함께 사업들을 추진해 나아갈 간부들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야겠다. 그리고 현총학생회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구상하고 전체적인 사업정책내용을 수립하면서 이것에 맞추어 특별법투쟁과 등록금투쟁을 준비해 나아갈 계획이다.

▲학우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당부할게 있다면.

—학생회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85학년도 세차례의 총회속에서 어렵게 학생회를 부활시켰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학생회 사업들이 학우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와 사랑속에서 전개되어야 하겠다.

올해 들어서 분임토의라든가 학년단위강화라든가 해서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에 편입되어 모든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우들 스스로의 관심뿐만 아니라 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학생회 사업에 함께 고민해 나아갔으면 한다.

【임상번 기자】

총학생회 선거공약

학생회 운영문제

○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과학생회 강화
(학년 학생회, 분과, 소모임건설 지원,학생의 날 '연합 학술제'개최)

○ 생생한 우리들의 의견 발로 뛰어 응집하는 학생회
(정기 정책간담회 개최, 산별 모임의 활성화, 학과방 방문의 날 설정)

○ 발로 뛰는 간부, 사랑받는 간부(정기 간부학교 개최 부서별 간부대회 마련)

○ (사월제)의 계승(4·3학술제, 문화제개최, 4·3유적지 순례 대행진)

학원 자주화 문제

○ 대학 자치운영협의회 건설의 토대마련(기성회비 예·결산 공개및 학생참여 정착화, 학과 교수·학생 협의회 건설지원)

○ 교과과정 개편, 강의 평가제 실시

○ 도서관에 법정 기준량에 한하는 도서마련, 도서관 뒷편에 야외휴게실 마련,

○ 소비조합 운영의 내실화(제2학생회관 건물배치에 학생참여 보장등)

○ 등록금 대책위를 구성하여 전대협, 제총협 차원의 연대투쟁 전개

○ 복지시설(단대별 식수대 설치, 우천시·학과행사시 학교버스 운영 제도화)

사회·지역 문제

○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 반대투쟁의 지속화

○ 일상적 농민과의 연대투쟁 활성화(농민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일상적 농활전개)

○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건설로 지속적 반미통일전개.

○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민주대연합 건설의 선봉적 역할수행.

□각 단대학생회장 입후보자 공약 점검

복지·취업·지역문제가 주를 이뤄

'92학년도 학생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입후보자들은 학우들의 관심사와 자신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10월28일을 전후로 해 17개조가 각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했다.

이제 입후보자들은 자신들이 내건 공약사항을 학우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우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특히 경선을 하게 되는 입후보자들의 선거전은 더욱 치열하다.

각 선관위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을 보면 크게 △학생회강화(단과대, 학과) △인권복지사업(학원자주화투쟁 포함) △지역문제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운영위조직을 학과학년대표까지 참여시켜 학과학생회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을 각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및 평가 결과, 학생회비 사용내역의 공개등을 통해 일반학우들에게 좀더 가까이 접근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이른바 '확대운영위원회'의 강화는 일부 입후보자들이 추진하려는 '단대학생대표자회의'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 중에는 공개토론회나 공청회, 학년별 방문을 통한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어 학우들의 지지와 함께 내년도 학생회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같다.

이들의 주장은 1년 사업의 계획과 심의에 이들 학과학년대표까지 포함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인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를 건설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사업내용의 계획에서 평가까지를 공개하는 한편, 단대운영위의 의결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과 기관지 발간을 공약사항에 담고 있다.

한편 학과학년대표에게 단대학생회 간부에 대한 감사·소환·처벌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내용도 보인다.

더욱이 후생복지분야는 학우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기도 해 각 후보자들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다.

후생복지분야에 있어서 입후보자들의 공약은 자판기등의 복지시설의 확충, 취업대책마련, 면학분위기조성을 꾀할 독서실 설치 및 확장, 휴식공간마련등을 비롯해 자연계 분야의 입후보자들은 실험실습비 사용내역공개를 약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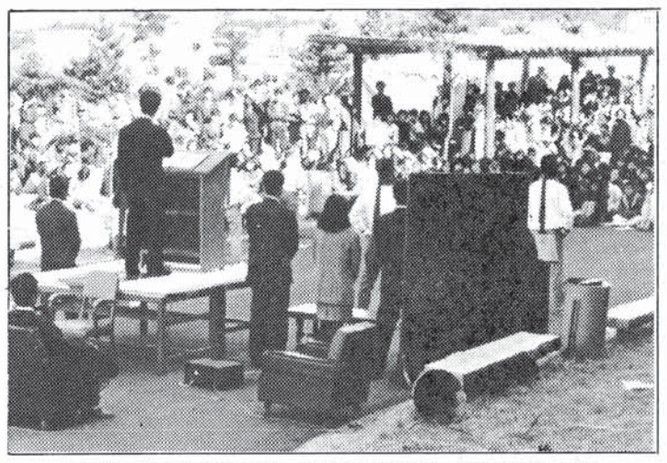
취업대책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취업정보판 설치, 취업설명회 개최, 취업일선 추진을 약속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교수를 참여시킨 취업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 있어 대졸자 취업난을 절실히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주위의 얘기다.

한편 어떤 후보들은 교수강의평가 실시, 교과과정과 교수영입문제에 참여하겠다는 조심스런 공약도 내세우고 있는 것도 보인다.

지역문제와 관련해서는 농학연대를 위한 각 단위 농민회와의 자매결연과 이를 통한 농활의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으며, 제주도 개발 특별법 및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같은 개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공약도 거의 공통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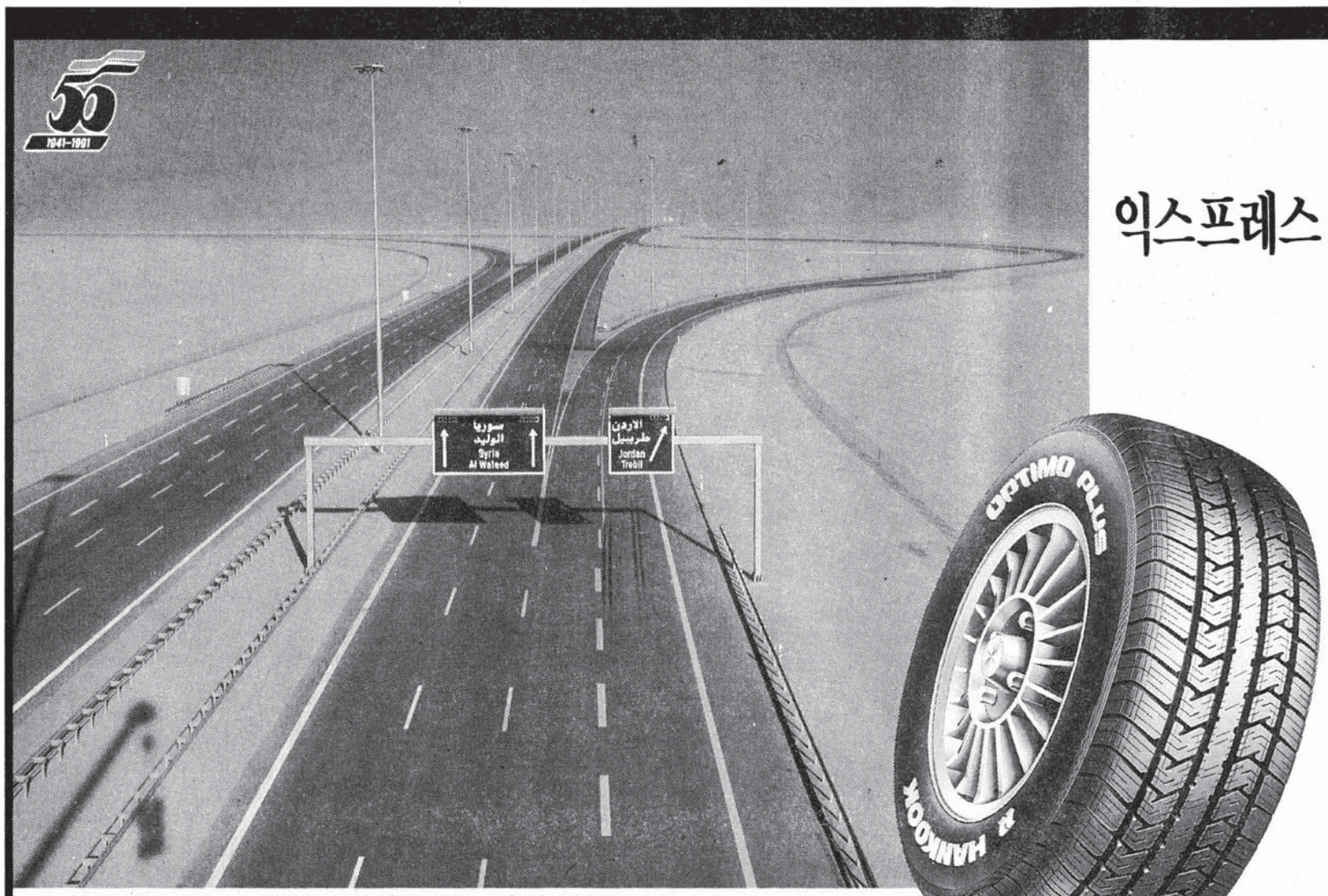
단과대 학생회 입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은 그나름대로의 몇가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학우들에게의 접근방법이 대동소이하다. 노선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우들의 관심사는 학우 자신들이 몸소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입후보자들의 공약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는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여러 후보자들이 갖가지 공약을 내세워 왔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각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원철 기자】



◇후보자들은 당선후에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사항을 지키기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진 : 지난 11월4일 인문대 유세장면>

멋과 품위로 선택하는 —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로 달리는 세계의 도로 시리즈 ③ 이라크의 요시 고속도로

익스프레스 NO.1 요시(YOSI), 그 끝 없는 지평선…

끝닿는데 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돌무더기.
그 무한한 사막의 지평선으로
끝없이 뻗어나간 중동의 고속도로 —

이라크의 첫 고속도로인 요시(YOSI)는
루트바에서 요르단 국경과 시리아 국경을 잇는
총 연장 132km의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진이 닦아 놓은 도로로
'익스프레스 No. 1' 이라고도 불리우는 요시고속도로 —
그곳을 우리의 한국타이어가 달리고 있습니다.

150여개국에 수출, 세계의 도로를 달리는 한국타이어는
중동의 사막을 가르는 눈부신 신기루가 되어
오늘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타이어
한국타이어 TIRE

□일본의 군사대국화 배경과 그 의미

세계군축 추세에도 불구 군비확장에 주력

미국과 함께 세계재패 꿈꿔

원 경 환
어업학과

Ⅰ. 시작하며

89년말경 일본의 가이후 도시키 수상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세계 각국을 긴장시켰다. 또한 올해 4월 26일에는 5백여명의 자위대원이 승선한 6척의 배가 걸프 해역을 향해 출항했다. 80년대초 나카소네 재임 당시 일본정부는 이란-이라크 전쟁의 부산물인 기뢰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병하려 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이번 역시 전쟁이 끝난 걸프 해역의 기뢰제거 작업에 협력한다는 명분이지만, 패전이후 군사적 목적을 띤 최초의 파병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군사력 역시 방위비 규모가 세계 3위, 서방 2위를 점하고 있는 강국이 되어있다. 더욱이 전세계가 군비축소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유독 일본만은 확장 일로에 있다.

'국제전략문제 연구소(IISS)'가 공개한 88~90년 '군사균형'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89년 방위예산액 3조9천1백90억엔(약 3백20억달러)으로 한국 국방비(57억달러)의 약 6배, 중국 국방예산의 5배가 넘는다. 또한 일본은 올해부터 향후 5년동안 '신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력증강 계획에 착수했다. (약 22조7천5백억엔 투자) 이것만으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치하 46년이라는 오욕을 안고 있는 우리와 더불어 일본 주변국가들은 요즘들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객관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에 따른 감정 차원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상황과 미국의 세계전략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Ⅱ. 일본과 자위대

2차대전 종전직후 맥아더 지휘하의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일본 군국주의 근절을 강조했던 포츠담 선언의 정신에 따라 일본의 비군사화 목표를 내걸고 일본의 군사기구 해체를 감행했다. 미국의 종전 직후에 일본을 무력화한 이유는 첫째, 일본 대신에 중국을 제패하기 위해선 일본을 군사적·경제적으로 약체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둘째, 중국이 아시아의 지도적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중국의 장악을 대 아시아 정책상의 열쇠로 간주하던 미국이 일본을 약소화시키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즉, 일본의 약체화는 미국의 전략구상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얼마가지 못해 종결을 맞게 된다.

49년 10월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은 중국 대신 일본을 대 아시아 정책수행을 위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수상에게 자위대 전신인 '국립경찰예비군'을 창설하도록 명령한다. 이것은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병참기지와 대북한 진격의 공격 작전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이다. 그후 1954년 7월에 현재의 자위대가 발족했다.

소련의 군사·경제력의 강화, 중국혁명 승리, 한국전쟁의 실패는 미국의 주도권을 위협했다. 이는 곧바로 미국의 정책에 반영되어 미국은 대소봉쇄정책을 아시아까지 확장했고, 베트남전쟁 패배의 경험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믿음직한 미국의 군사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미·일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두나라 사이에 채택, 의결된다. 가이드라인이란 미·일공동작전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미·일공동 방침서를 말한다.

또한 1952년 4월에 미국이 일본 점령사태 해제를 조건으로 일본과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1960년에 자위대 증강 의무와 미·일공동작전 체계를 제시한 안보조약으로 개정된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이미 군사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일본헌법 제9조 1항은 "일본은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방기한다"라고 돼 있으며 또한 9조 2항은 "육·해·공군과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법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다. 그러나 일본에는 군대 대신 자위대가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군대를 공격대 내지는 침략군이라 하는가?

자위대의 군사력을 보면 이미 자위의 수준을 넘어섰다. 89년도 자위대의 병력은 약 27만명(주일미군 제외)으로써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공군자위대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작은 것 같지만 일본의 자위대는 프러시아적 군대편제로 자위대중 하사관의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유사시 국민개병을 통해 일반병사로 휘하에 배속하면 일거에 3백만 대군으로 변신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장비로 보아도 자위대는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경제력, 기술력까지 감안하면 자위대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이 간혹 발표되곤 한다.

◇이미 일본은 여야의 합의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평화유지 활동 협력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등 군사대국화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자료:『신동아』 91·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자위대는 미국의 세계재편 야욕에서부터 미국에 의해 창설되었고 미국의 세계전략구도하에서 팽창되어 왔다.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 역시 미국의 의도와 일본의 야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Ⅲ. 미국의 세계전략과 일본의 야욕

1991년 한 해는 미국의 '독무대'였다. 걸프 전쟁에서 미국은 전세계 유일한 패권자로서 힘과 권위를 자랑했고, 최근의 소련사태는 미국의 자존심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영광속에는 만신창이 경제가 있다.

걸프전과 소련의 붕괴는 미국의 단일 세계지배체제(Pax-Americana)를 형성시켰다. 즉, 미국은 이렇게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확고히 발돋움 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군비를 확충하며 소련과 군비경쟁을 하다가 경제는 재정적자, 무역적자로 얘기되는 쌍동이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미국은 50년대 세계 GNP의 2분의1을 차지하던 영광을 뒤로 하고 이미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한 반면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대로 미국이 군사분야에 과도한 출혈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착실히 경제성장을 이루며 오늘의 일본을 이룩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체제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군산복합체'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힘에 의한 세계제패의 야욕을 진행시켜 왔다. 81년에 들어선 레이건 정권은 강력한 미국재건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군사비 증강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일본에 군비부담 증대를 요구했다. 부시 역시 레이건의 힘에 의한 정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정책속에 경제적으로 약화된 미국은 전 세계적전략을 자신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고 동맹국, 종속국에 책임분담·역할분담·군비분담을 강요했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 대한 군사비 증강 요구를 단지 군사전략상의 필요에서 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 즉 일·미경제의 불균등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했다. 일본이 그간 미국의 보호아래 발전해온 만큼 이제는 일본 역시 경제적 규모에 맞는 군비부담을 지게하여 일본의 경제성장을 억제해 보려는 미국의 의도이다. 이것은 80년대 들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1000해리 시레인 방위'와 '방위비 1% 상한선 철폐요구'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사비 증강은 미국의 압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물론 일본의 외수주도형의 경제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압력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경제대국이 지위에 걸맞는 정치·군사대국의 꿈을 꾸고 있다.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강대국간의 전쟁에서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 역시 필요하다. 소련이라는 가상의 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NATO가 느슨해지고 독일이 일본과 아울러 미국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세계질서 재편을 놓고 치열해질 경쟁에서 일본으로서도 군사력 강화는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Ⅳ. 맺으며

이상에서 일본의 군비확충과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군사전략상 필요와 경제적 대응, 그리고 일본의 내적 요구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미 일본은 여야의 합의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등 그 음모를 노골화 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 진영의 역관계는 항상 한반도 정세에 밀접하게 작용하여 왔다.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현재 진행되는 평화무드와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강연초록 기회, 선택 그리고 정의

이 글은 지난 10월4일 동아시아 연구소 주최로 교육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있었던 런던 정치경제대학 브라이언 베리(Brian Barry, 정치철학)교수 초청 세미나 '기회, 선택 그리고 정의'의 강연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엮은이 씀〉

브라이언 베리
런던 정치경제대학 교수

◇지난 10월4일 동아시아연구소 주최로 교육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브라이언 베리 교수 초청강연.

1. 正義의 2原則

본 세미나에서 내가 검토하려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란 그 사회의 제도들이 분배의 2원칙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이 2원칙은 보상의 원칙과 개인적 책임의 원칙이다. 보상의 원칙이란 사회의 제도들이 불운과 행운을 서로 중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불운을 겪은 사람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책임의 원칙의 사회적 합의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에 대해서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두원칙이 사회내의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는 완전한 규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며, 또 다른 원칙들의 보조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 두 정의의 원칙 작용은 공동이익이라는 편의의 원칙의 작용에 의해 수정되어왔다. 그러므로 이 공동이익 이외의 다른 모든 원칙을 배제시켜버린 공리주의를 거부한다.

보상과 책임원칙의 계보를 상세히 추적하지는 않겠다. 다만 여기서는 보상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을 어떻게 통합시키는가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원칙은 그의 통제밖의 요인들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상황에 어떤 개인이 놓인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이 원칙의 양면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떤 것이 행운의 문제라면 이것이 당신의 통제밖에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의 문제라면 당신의 통제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이적 문제해결은 쉽게 난점에 봉착하게 된다. 즉 기회와 선택각각의 극단화는 서로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2. 선택주의

여기서 선택주의란 어떤 일정한 권리를 지닌 사람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선택으로부터 생겨난 결과들은 정의로운 결과들이라는 의미이다. 선택주의는 모든 결과는 선택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선택과 기회간의 상관성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제비뽑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보상의 원칙에 따르면 제비뽑기는 완전히 기회에 의해 결정 것으로 당첨자는 당첨금을 참여자에게 재분배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선택주의는 제비뽑기의 참여는 선택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당첨자에게 모든 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 책임의 원칙은 자발적 행위에만 관계되며 선택은 여러 경우 자발적이 아닐 수도 있다. 경성 선택론자는 선택의 모든 현상을 강력한 선호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성 선택론자들은 선택자들이 선택이 다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질수 있으며 또 이것에 별로 개의치 않으며 결과에 따른다.

선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보험제도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택주의는 시장체계가 산출하는 부의 편차, 교육결과에 따른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정당성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제비뽑기 같이 당첨자가 모든 것을 챙기는 선택주의적 입장은 정의로운 사회에 맞지 않는다. 즉 기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으므로써, 불평등한 결과들을 정당화 하는 데 있어 선택의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을 약간 수정한 제한적 선택주의가 있다. 이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조건의 한계를 인정했다.

3. 反選擇主義

나는 기회와 선택이 모두 정의에 상관이 있으며 또 좀더 면밀히 살펴볼때 기회가 선택을 거의 전적으로 압도한다는 입장에 관심이 있다. 이것을 반선택주의 내지 기회중심주의라 이름붙일 수 있겠다.

선택주의와 반선택주의간의 이슈는 취미, 영감, 신념(이하 신호라 함)에 따른 선택의 결과가 개인적 책임과 상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반선택주의는 개인적 책임의 원리가 원리로 서는 타당하지만 실제 삶의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개인적 책임은 선택에 달려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선호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결코 원칙적으로 선택을 할 수 없다.

선택주의의 기본전제를 약간 완화하여 개인적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 선호들이란 의도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창조된 것들과 지금 그 행위자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몇몇 선호들은 개인적책임을 제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또 실제로 실현 가능한 선택이 개방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또 실제로 실현 가능한 선택이 개방되어 있으며, 이것은 어떻든 결과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문제삼는다. 그러나 극단적 반선택주의자는, 선택은 선호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책임도 부정했다.

선택주의와반선택주의의 차이는 동일한 어떤 선택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의 경우, 전자는 두 사람을 단순히 평민적으로 단순히 같게 취급하지만, 후자는 이 조건이 동일한 가치를 산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동일한 가치란 동일한 복지수준(혹은 효용성)을 의미한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사회적 정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등한 복지를 요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든 행위가 동일한 크기의 복지의 양을 산출한다면 사회의 하향평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보장된 평등한 복지에서 보상과 차별이 있는 제도형태로 나아간다.

4. 선호에 대한 책임: 하나의 대안적 접근

반선택주의의 전재들을 수정하여 정의에 대한 나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그들의 행위가 생겨난 선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 선호의 책임성은 선호가 선택에 의한 것이냐에 달려있다.

즉 사람들이 그들의 선호에 만족할 때에만 그들의 선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것은 "半選擇主義"라 하겠다.

선념의 경우를 보자. 살아오면서 주입되어온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신념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는 일종의 불운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호를 바꾸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한, 반(semi)선택주의자들은 *反選擇主義者*와 일치한다.

결론으로 나는 기회, 선택 그리고 종의간의 관계를 해명하려 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엉켜있는 것이며, 앞으로 더욱 상세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컴퓨터 개강!

11월4일(月)

강의시간＼교실	제1교실	제2교실	제3교실	제5교실	제6교실	제7교실	제8교실
9:00~10:50	COBOL Ⅱ	ASSEMBLY	BASIC Ⅰ		COBOL Ⅰ		DBASE
11:00~12:20	FORTRAN		BASIC Ⅱ	C	EDPS개론	W/P	MS-DOS
4:00~5:00			중급	초급		고급Ⅰ	중급
5:10~6:10			고급Ⅱ			어린이 MS-DOS	고급Ⅱ
6:10~7:30	COBOL Ⅱ	FORTRAN	BASIC-Ⅰ	MS-DOS	EDPS개론	MS-DOS	DBASE
7:40~9:00	ASSEMBLY	기사실기대비	BASIC-Ⅱ	LOTUS	COBOL-Ⅰ	W/P	MS-DOS

월드컴퓨터학원
위치 : 중앙로 주택은행뒷길 아세아탁구회관
전화 : 52-3321, 57-6878

教授採川公告

본 대학교 전임교수(전임강사 이상)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大學	專攻分野
人文大學	獨語學, 哲學, 日語學, 西洋畵, 中語學
法政大學	憲法
經商大學	마아케팅(消費者行動), 人事管理(組織行爲), 觀光經濟論 및 觀光情報論, 國際經濟學(國際金融 및 國際收支)
師範大學	Shakespeare 및 英美戱曲, 英美詩
農科大學	農産物流通論, 食糧經濟學, 獸醫內科學, 獸醫外科學, 獸醫産科學
海洋科學大學	上下水道工學, 海洋土木開發工學
自然科學大學	電子物理學 또는 原子物理學, 生化學, 物理化學, 食品化學 및 分析, 住居學
工科大學	食品物性學, 線形System 設計, 衛星通信, 情報理論 및 Pattern 認識, Algorithm 設計와 分析, 神經回路網, 金屬工藝, 環境計劃

2. 채용인원 : 각분야별 약간명
3. 응모자격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4. 제출서류
가.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우측상단에 응모분야 및 연락전화번호 명기)…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각 1부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전 경력)…각 1부
라. 연구실적목록(제목, 연구자, 발표년월일, 발표기관 및 학술지명, 논문개요 기재)…각 1부
마. 연구실적물(1988. 3. 1 이후 발표된 논문 또는 저서) 200% 이상…각 2부(1부는 원본)
단, 학위논문은 발표기간에 제한없이 석사논문 100%, 박사논문 200% 인정함.
바.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 첨부(국외경력은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서류제출마감 : 1991년 11월29일 17:00까지(기한내에 도착분에 한함)
6. 서류제출처 :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7. 결과 통지 :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함
8. 기 타
가. 국내 타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자는 채용예정자로 결정되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없으면 임용될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교 교무처 교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4) 54-2012, 55-6204, 54-2011, 54-2013 FAX : (064) 55-6130

1991년 10월 31일

濟州大學校總長

공군장교모집

(조종사 기술전문)

Ⅰ. 지원자격
○연령 : 만20세~27세까지(1964. 7.2~1972. 7. 1)
○학력 : 4년제 대학졸업및 졸업예정자로서 학상학위 이상 소지자
Ⅱ. 모집일정
○지원서교부및 접수 : 1991. 10. 28~1991. 11. 16
○1차시험 : 신체검사 : 1991. 11. 18~1991. 11. 23
면 접 : 1991. 11. 27~1991. 11. 30
학과시험일시 : 1991. 12. 8
○학과시험과목 : 1. 장교적성검사(일반상식, 영어)
2. 전공(선택)
3. 국민윤리(과락제도)
○1차발표 : 1992. 1. 13
○2차시험 : 1992. 3. 4~1992. 3. 7
○입 교 : 1992. 3. 9
Ⅲ. 접수장소
○각 시·도 지방병무청 민원실
Ⅳ. 특 전
○기술및 전문요원
-장기또는 연장복무자(의무복묵기간+2년, 3년, 4년)우대선발
-공인회계사, 세무사,동시통역사, 국가기술자격증(기사1급)및 특수경력소지자 우대선발
-관련전공학과(인문사회계열)석사학위이상 소지자중 정훈특기분류자 및 2년 경력관리까지 인정된 공인회계사는 중위임관
-본인의 전공학과 및 선택과목 고려한 특기분류
○조종요원
-비행수당, 특별급식비, 항공장구지급
-민간항공 조종사 면허취득, 전역시 항공사 취업추천
Ⅴ. 복무기간
○기술 및 전문요원 : 임관후 3년
(조종요원 : 임관후 10년)
Ⅵ. 문 의 처 : 94-7362 (인행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장소에서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도내 최초의 정보처리요원전문교육기관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키펀치기능사

제103기개강11월 4일(월) 11월학기수강접수중! (공휴일도)

•제12차 교육실습기자재 컴퓨터 도입
최신 SOFT WARE 1000여종보유 실습실 공휴일도 개방

1991년도 정보처리기사·기능사 시험안내(하반기)

기사1급	필기	실기	기사2급	필기	실기	기능사1급	필기	실기	기능사2급	필기	실기	자료입력보조	전자계산기조작응용
		12. 1			12.1			11.10			11.24		

◉전문전산인 양성교육 ◉국가검정대비!! ◉유능한 강사진!!

•문교부장관 표창수상!
•서울중앙전산학원과 자매결연 교육정보교환!
•제주지역 정보처리기사 합격자중 절대다수 본원출신
•한국과학기술원시스템 공학센터 전산교육수료자
•기사1급 다년간 강의경력자
•서울중앙전산학원 강사연수 수료자
•대학원 전공자

•기사1급 필기대비반 •기능사1·2급 실기대비반 •기사2급 필기대비반 •AUTO CAD(새벽) 개강!! •메크로 어셈블러 개강!!

◎ 프로그래밍 정규교육과정
•EDPS개론 •Fortran-Ⅰ, •Fortran-Ⅱ, •COBOL-Ⅰ •COBOL-Ⅱ, •Assembly, •O.J.T(시스템분석및 설계 실무)
◎ 프로그래밍전문교육과정
•G/W BASIC-Ⅰ •G/W BASIC-Ⅱ •파스칼 •C언어-Ⅰ, Ⅱ
◎ 프로그래밍 특별교육과정
•기사1, 2급 필기·실기대비 •기능사 1, 2급 필기·실기대비 •전자계산일반 •AUTO CAD •메크로어셈블러 •유닉스(제닉스)(공무원시험대비)
◎ 사무자동화(OA) 교육과정
MS-DOS→ •워드프로세서 •로터스및 심포니 •d/BASE→
◎ 마이컴(BASIC) 교육과정
•국교(초급, 중급, 고급,특별) •고교생반 •중학생반
◎ 키 펀치(엔트리)과정
한글, 영문, 숫자 키펀치완벽실습 •최신 워드프로세서 완비교육 •마이컴 조작실습(1인 1대시스템 운용교육)

컴퓨터교육의 명문
한양컴퓨터학원
위치 : 중앙여중 서사라입구건너편 ☎52-1729~30 22-2709 FAX58-1151

□취업문제진단〈5〉 —여학생 취업대책

전공 잘못살려 대개 서비스업계 진출

'남성위주'벽 허물고 적극 대책 세워야

글 싣는 차례
1. 취업난과 우리학교 취업실태
2. 고용정책의 변화
3. 직업변화와 유망직종
4. 도내의 기업현황
5. 여학생 취업대책
6. 우리학교의 취업대책

경제성장과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등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외면, 남녀차별 등으로 그 욕구는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9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됐지만 기업의 여성고용은 오히려 줄고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5인이상 사업체의 여성고용 상황은 88년 1백72만6천명, 89년 1백72만2천7백명, 90년 1백70만2천명으로 나타나 여성 취업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부가 추산하는 92년2월 4년제 대학졸업 예정 여대생 숫자는 대략 6만2천여명이라고 한다. 여기서 진학 혹은 결혼할 1만여명을 제외하고 최근 4~5년간 누적된 소위 '취업재수생' 5만여명을 합하면 올 하반기 취업희망대졸 여성인력은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새로운 일자리 10만2백여건중 여대생에게 제공될 일자리는 2만3천여건으로 추정되고 있어 취업희망 대졸 여성인력의 75%는 취업재수 혹은 결혼등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여학생들은 지방대중에서도 '섬'이라는 악조건을 하나더 짊어지고 있다.

우리학교 장학담당관실에서 집계한 '90학년도 졸업자 취업현황('91년6월30일 현재)을 보면 '90학년도 여학생 졸업자 6백20명중에서 3백27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55.1%로 나타났다. <표-1>

이를 각 분야별로 보면 일반기업에 1백31명, 자영·기타에 1백15명, 나머지 81명이 국영기업 5명, 금융기관 15명, 언론·출판 6명, 공무원 42명, 교직 13명 등으로 분포돼 있다. 여기서 자영·기타에는 가업을 전수하거나 가업을 돕는 것까지도 포함하므로 그 한계가 불분명한 이 항목을 빼면 취업률은 36% 정도로 낮아진다.

여학생 취업을 학과별로 보면 미술학과, 회계학과(야), 통신공학과, 영문학과 등이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2>를 보면 현재 제주도내의 여성 근로자 수는 9천8백8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 음식, 숙박업 3천1백69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2천90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한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이므로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 4년간 배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대다수의 여성졸업자가 호텔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학교 여학생들의 취업의 또하나의 문제다.

이와같은 우리학교 여학생 취업난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첫째, 고용정책에서의 남녀차별을 들 수 있다.

매년 4년제 대학의 여성 졸업예정자는 4~5만명에 이르는데, 이중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인원은 5백~1천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1〉 '90학년도 여학생 졸업자 취업현황

	졸업자수/여학생졸업자수	직업별 취업자(수) 일반기업	국영기업	금융기관	언론출판	공무원	교직	자영기타	계	취업률(%)	순수취업률(%)
인문대	311/243	56	2	4	4	3	0	55	124	53.0	51.0
법정대	153/ 33	1	0	1	0	9	0	3	14	45.4	42.4
경상대	282/ 82	41	0	4	2	6	1	13	67	84.1	82.0
사범대	180/102	6	0	1	0	10	11	10	38	37.2	37.2
농과대	166/ 28	6	0	2	0	1	0	10	19	68.0	68.0
해양대	139/ 8	4	0	0	0	0	0	0	4	62.5	50.0
자연대	115/ 66	5	2	0	0	8	0	14	29	53.0	44.0
공과대	198/ 58	12	1	3	0	5	1	10	32	55.1	55.1
총 계	1,544/620	131	5	15	6	42	13	115	327	55.1	53.0

자료제공:장학담당관실(91.6.30현재)

〈표-2〉 업종별 도내 여성근로자 현황

	농·수산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용역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총 계
사업체수	571	114	8	165	283	173	221	197	1,732
총고용인원	3,993	2,812	920	3,320	7,182	9,134	5,721	5,823	38,905
여성 근로자수	16	828	62	389	3,169	1,372	1,962	2,090	9,888

자료제공:제주지방 노동사무소(91.4.30현재)

◇여성 스스로가 적극적인 태도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문을 넓혀 나갈 때에만 사회에서 직장여성으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다.

고용자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주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남학생도 그렇지만 여학생은 특히 공개채용이 아닌 연고에 의해 수시로 소수만 취직되는 밀폐된 형식으로 이뤄져 소위 말하는 '연줄'이 없으면 취직도 못한다는 결론이기에 고용정책에 따른 여학생 취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둘째 학교당국의 취업정책부재이다.

비록 지방대이고 비명문대이기는 하나 학교당국의 취업정책이 우리학교처럼 미흡한 대학도 드물 것이다.

우리학교 여학생 졸업자 중에서 고작 22명이 도외로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망직종 소개, 취업 설명회를 자주 여는 등의 취업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여학생들이 도내 뿐만 아니라 도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여학생들의 취업 분야도 서비스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넓혀나가야 함에도 학교당국은 그에 대한 대책을 거의 세우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 스스로가 자기개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10월15일 2동중강당에서 열렸던 '대졸여성의 취업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김영정(전 정무제2장관)씨는 "여성들에게 종래 남성위주 분야로 생각했던 분야의 교육과 훈련도 쌓도록 해야하며 여성 스스로 여성 전통 분야에 '직업적 울타리'를 쌓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한 취업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직장으로 인식하고 여성 스스로가 여성을 천시하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력양성만이 취업전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무기임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공개채용보다는 추천 채용이 많으므로 서류전형과 면접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학점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직종선택의 기회가 제한된 여학생들에게 그나마 유망한 직종으로는 전산직, 전문비서직, 외국관련 업종, 사보편집, 출판기자, 코디네이터, 카피라이터, 영업관리, 홍보직, 호텔관련직, 관광통역안내원, 환경기사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직종은 전문적인 소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 재학시절 외국어 연마, 자격증 취득, 속기, 컴퓨터 교습등 취업 대비책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여성 스스로가 적극적인 태도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문을 넓혀 나갈 때에만 사회에서 직장여성으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김미진기자】

□취업문제진단〈6〉 —우리학교의 취업대책

취업대책위,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

취업전담기구 설치·업무전산화 시급

일년내내 취업이라는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계속되어 '취업공황'이라는 말이 실감날 지도 하다.

특히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한 인력공급에 대한 수요의 과잉 창출이라는 구조적 모순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전망속에서 그에 따른 고용인력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대학이라는 일단 한걸음 뒤쳐지게 인식되는 입장에서 경쟁대열에 서야하는 우리대학 학생들에게는 더욱 크게 와닿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90학년도까지의 취업실적을 보면 89학년도 졸업생은 72.5%의 취업률을, '90학년도 졸업생은 9월 현재 54.2%의 취업률을 나타내는등 다른 지방대학에 비하여 점점 향상돼가는 추세이나, 이러한 취업이 순수취업률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하는 문제와 원하는 직장의 선택이 얼마만큼 충족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내년도 졸업자에 대한 취업은 205명이 취업의뢰됐다는 사실외에 취업상황은 아직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러한 의문들은 지역적 낙후성으로 인한 정보의 미흡, 지방대학으로서 갖는 여러 취업기회에 대한 차별에 따르는 불리한 여건들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위에 취업차단 통로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자체내에서의 취업준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거의 미비한 상태이다.

취업철이 다가오면서 장학담당관실을 중심으로 4학년생들은 막바지 취업정보와 직업선택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학교당국은 물론 학생자신들 조차 취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대비책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하면, 그나마 세워지는 취업대책도 학과자체내에서만의 고립적인 문제로 그쳐, 학내 전체의 유기적인 취업실태 파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생활연구소와 장학담당관실마저 인력의 부족, 시설의 미비에 따른 여러문제들로 인해 제기능을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

장학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취업정보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둔감하다"며 "취업은 4학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1학년때 부터 취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취업대책위가 총장을 중심으로 본부와 단대별로 설치돼 있긴 하지만 그활동이 활발하지가 않아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대책의 미비는 요즘들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턴사원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거의 손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학우들은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불합리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홍익대의 경우 교수 1백40여명 전원이 연고기업체를 방문, 취업추천활동 등을 벌이고 그 실적을 총장에게 적접 서면보고한 뒤 교수전원이 참석하는 평가회의에서 활동내용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대도 교수·동문·재단관계자 50여명이 취업대책회의를 열고 1학기동안 전산화를 마친 졸업예정자의 취업카드를 분류, 단대별로 70여개 기업체를 방문해 추천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희대학교에서는 취업보도업무를 전산화하여 취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기업체의 채용계획, 취업희망카드, 동문 및 학부모, 기업인 명부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적격자를 신속히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취업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학과별 취업교육의 계획을 수립하는것 외에도 회사설명회, 취업특강, 영어회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취업정보지 제작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것 외에도 강원도 지방에서는 '1기관 1기업체 자매결연' 운동을 전개하여 향토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는 범도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하여 지방자체내에서 취업난을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대학에서도 여러 다른 대학의 모범적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업대책에 대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우리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 육지부 7백여개의 기업체에 취업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같은 일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학생운동에 대한 역할의 방향설정에 있어서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타대학에서도 강구되어지고 있는 사회진출을 위한 모임등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과학생회에도 분과모임등을 구성하여 학생중심의 적극적인 취업문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취업대책기구간의 유기적 협력이 미흡하고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던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설기구마련이 필요하며 인원확충과 설비등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정보와 홍보를 통해 학우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우들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연히 떨어지는 추천의 행운을 기대한다든가 하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취업당사자는 물론 학교당국과 학부모 동문등이 연계해 총체적으로 취업난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양은실기자】

쉼 팡

대학선거와 미꾸라지

몇년전 학우들 사이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다. "깊은산 오솔길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연못에 살던 두마리의 금붕어가 서로 싸우다가 한마리가 죽자, 그 죽은 금붕어의 몸이 다시 썩어 들어가 결국 그 연못은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28일 등록마감을 시작으로 고조되기 시작한 요즘의 선거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이 노래가 시사하는 바는 클 것이다.

올해는 예전에 비해 총학생회의 단독 출마와 3개단대를 제외한 5개단대가 경선으로 치뤄짐으로 해서 예전의 총학생회를 중심으로한 선거분위기가 각단대로 옮겨져 치열한 선거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왔던 N·L과P·D의 노선대결에 덧붙여 비운동권과 운동권이라는 대결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대립이 정책노선이나 선거공약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등의 흑색선전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것이 일반학우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 예로 농대와 경상대에서 출마하는 각 두후보들은 "민자당이 선거자금을 대준다"느니 "뒷배경(?)에는 누가 있다"느니 하는 식의 근거조차 불분명한 소문들이 교내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자라나 이에 대한 반박 대자보등이 나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그 근거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까지 미리 봉쇄하여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역행하는 행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내년 92년도가 '권력 재편기'라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더욱 예민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립양상의 부작용은 자칫 학생회 선거가 정견이나 사상투쟁의 장으로만 그쳐 실질적인 유권자들인 학생대중이 선거에 대한 회의나 이탈을 조장하게될 우려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하여 탄생한 학생회가 학우대중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학생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도모해야할 때 오히려 이의 분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학에서 선거의 의미가 성원들이 1년동안의 학생회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입후보자들과 함께 마련한다는 데 있다면 보다 나은 사람을 뽑기위해 대등한 입장에서 학우들의 진정한 결단을 기다려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한다.

유기체가 '공생'하며 사는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한쪽의 불신이 또다른 불신을 자극하여 결국 한 연못을 죽음의 연못으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實】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는일 — 선경이 하고 있습니다.

선경은 국내 최초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집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경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울 수 있는 더욱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주) 선경 에너지본부 원유팀 원유딜러 이 희 준

"나의 직책은 원유딜러…"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종합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원유딜러

지금 시간 밤11시…
컴퓨터에서 연신 토해내는 기계음만이 동료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다.

국제정세의 기류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국제원유시장에서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촌각을 다투며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나의 직책은 원유딜러…

컴퓨터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입수되는 국제원유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원유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예측하여 산유국에 구입의사를 타전하고 원유를 구입 하기까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다.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에서 맺은 인연으로 수월해진 비지니스

오늘은 원유수입국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접촉한 중국측 석유회사로부터 받은 거래조건에 대한 결정사항의 검토가 끝나면 퇴근이다.
마침 이번에 거래하게 된 중국측 회사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
2년전,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키우기 위해 참가한 신입사원 해외전지 훈련시 방문했던 회사와 비지니스 파트너가 될줄이야.!

'89 해외전지훈련중 북경천안문광장에서

이번 거래상담은 한층 수월해질 것을 기대해 보며 해외전지훈련시 중국에서의 값진 체험들을 되새겨 본다.

선경에서 오셨습니까? 세계 반갑습니다!

우리 일행을 얼싸안고 반겨준 하얼삔 한인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동포애.
23시간 동안 만주벌판을 가로지르며 중국의 거대함을 다시금 일깨워준 하얼삔발 베이징행 열차. 살아 움직이는 중국무역의 전초기지 상하이. 기나긴 겨울잠에서 중국을 깨어나게 만든 수도 베이징에 넘실대던 민주화와 개방의 물결들 모두가 소중한 체험으로 남아있다.

내게 처음으로 세계를 알게해준 신입사원 시절의 해외전지훈련…
지금도 귓가에는 아득히 펼쳐진 만리장성에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목청껏 외치던 패기의 함성이 메아리쳐 들려 오는듯 하다.

오늘 퇴근길엔 서쪽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을까?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선경매그네틱·쉐라톤워커힐·선경건설·(주)유공·유공해운·(주)유공가스·유공아코화학·(주)용국상사

□ 제5회 사회발전 연구포럼 요지

중산간 개발계획 추진 즉각 보류

지하수 개발의 폐해부터 명확히 밝혀야

제5회 사회발전연구포럼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심포지엄'이 사회발전연구소(소장 강경선·농업경제학과 교수)와 제주도지방자치연구회(회장 송승필) 공동주최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26일 오후 1시 농협중앙회제주도지회 4층강당에서 열려,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지난 8월30일 공개돼 관광개발 일변도로 1차산업에 대한 대책이 없을 뿐만아니라 외지인 토지소유실태 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있고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이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제2차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이 포럼에서는 강병기(한양대)교수의 '제주도종합개발의 기본방향'과 주봉규(서울대)교수의 '제주농업발전의 제문제'등 5명의 주제발표와 8명의 교수·농민·학생의 지정토론외에 방청자들과의 열띤 자유토론이 벌어져 약 6시간30분만에 끝났다.

이날 있었던 주제발표·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병기(한양대교수)=(제주종합개발의 기본방향) 주민들은 제주개발이 제주도의 자연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1차산업기반, 소규모토지, 소규모자본)위에 쌓여진 사회문화적 환경(각종 민속, 풍습, 생활양태)를 온존시킬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소득증대, 공공시설 개선등) 지역주민이 개발과정과 개발결과의 운영에 주체가 되고 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안에는 이를 무시한 내용들이 첨가돼 있다.

첫째, 경제개발 우선주의이다. GNP의 성장을 위해 지역총생산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대전제하에서 경제적 의미를 가진 지표, 계량가능한 지표만을 통한 평가가 이뤄지고 개발이익의 분배방식 결여로 지역사회에 대한 수탈적 개발계획을 담고있다.

둘째, 전일적 사고의 부재이다. 부문간의 불평등을 용인 또는 전제하므로써 전체는 병든 상태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소규모의 복잡한 다양성조직보다 대규모의 소수주체에 의한 단순성조직을 지향하므로 지역전체로서의 체질감이 약화될 우려를 안고 있다.

셋째, 지역성의 부재이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방법 미비를 위시하여 지역개발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진흥을 목표로 삼아야한다는 사상이 결여되고, 식민지개발의 사상이 내재돼 있으며 지역으로부터 접근하고 발상하지 못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1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충하면서 그 부수적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산업에 있어 주민참여가 어렵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환경보전과의 양립이 어려워 개발투자자가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단위 관광시설의 확충 방침에의 반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규모 개발과 주민참여의 지원확대체계와 실효성있는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

▲주봉규(서울대 교수)=(제주농업발전의 제문제)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발전권역·영농유형 설정, 경제작물·과수 및 축산등의 주산단지 조성, 농업생산기반 사업의 확충, 농업소득 내실화방안 개발, 생산단지의 생산과 유통판매 및 가공·저장의 설치계획 구상, 경제작물·과수 및 축산에 연관된 산지 및 목장용지지원화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축산업에 관한 수급의 전망예측,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계획 예측, 자연적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검토하에 지역별 농업발전권역 설정시도, 농축산업 유통체계 합리화의 계획, 농가소득에 관한 계획수립, 산지개발계획 수립, 주변의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의 지표가 제시된다 하겠다.

▲문대탄(제주신문 상임논설의원)=(제주도종합개발계획중 개발방식의 문제) 2차개발계획에서는 개별허가방식을 추가한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허가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개발의 실질적 내용을 도지사의 개별허가에 일임한 것은 정계·관계의 고위층을 통한 토지재벌·개발사업자의 압력에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개별허가방식은 제주 전지역에 걸쳐 소단위 개발을 하여 균형개발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연파괴를 전역에 확산시키고 제주도 전역 특히 중산간일대에 대한 개발이권을 미리 분배·독점시켜 사회적 불균형과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개발이권 사전분배의 핑계일 수 있다. 아울러 지가상승과 사전계획·예측가능성을 막고 이익분배의 공정경쟁을 막는 폐쇄사회 방식일 수도 있으므로 지역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영리적 사기업의 기획에 맡기는 개별허가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영희(성산읍 성산리장)=(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전개)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관광산업에 치중하여 1차산업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시행착오를 범했는데 이에 대한 대안제시 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종합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중앙통제형의 개발방식은 외지인의 땅투기를 더욱 부채질할 뿐만아니라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 협업단체를 구성하여 편중된 대기업 지원을 각 지역의 정책지원자금으로 전용하는 노력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선담보 후지원의 정책을 선지원 후담보로 전환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해야 지역민의 개발참여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제5회 사회발전 연구포럼'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심포지엄'이 지난 10월26일 농협중앙회 재주도지회에서 열렸다.

▲윤정수(해양학과 교수)=(제주도종합개발과 지하수 보전대책) 제주도 지하수의 개발역사는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하수의 자연수위 하강, 해안지역의 해수침투, 지하수의 수질오염, 과다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지질 지지력의 약화로 인한 지질재해 우려 등이 그것인데, 따라서 지하수 자원의 개발에 따라 보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질원개발과 관리 기관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지하수 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오염예방을 위한 도내 부존 지하수와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자원개발의 다양화 모색, '지하수 보호법'제정, 해수침입 방지대책의 수립과 추진, 생수 및 온천개발의 규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가칭 '제주도 수자원보존연구소')의 설립등의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원호(유기농업회장)=농업등의 1차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한 개발방식은 재검토를 요하며, 지하수오염뿐만 아니라 축산부분을 도태시키며 영농의욕을 감퇴시키는 골프장 건설은 결사반대한다. 또한 '묘지이장시안'이 있는데 이것은 충효사상고양과 청소년선도 차원을 위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계획안이므로 결코 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돼선 안된다.

▲허인욱(생물학과 교수)=2차 종합개발계획은 용역의뢰, 과정, 내용에서 관광개발 일변도로 치닫고 있어 1차산업 육성의 문제가 제외되고 있다.

지자제의 실시로 제주도가 '특정지역'에서 제외될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2차종합개발계획에는 그러한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제외됐을 때 국가의 지원을 계속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것의 활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의 호조건을 운운하면서 휴양단지·민박·리조트형 관광공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1차산업과 3차산업과의 연계인지 1차산업감축을 위한 조정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선언적인 개발주체를 거론하기 보다는 그 '주체'의 실체와 모델설정을 통한 주체에의 접근이 필수 불가결하다.

▲장성수(관광경영학과 교수)=관광산업 미진에 대한 분석은 계획의 집행치·목표치 재해석에 달린 문제이다. 주제발표에서는 3차산업에 의한 1차산업의 발전측면을 간과하고 있는데, 실적대비율은 낮지만 3차 관광산업의 지표적 방향이 없었다면 고용증대·부가가치 증대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가망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한다.

개발방식에 있어서 개별허가방식과 지구지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계획의 졸속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혼합개발방식으로 겸용할 수밖에 없다. 행정축소와 민주화가 중앙정부의 하나의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운영의 묘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사례에 직면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방식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현공남(농업경제학과 교수)=중산간지역 보존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지하수개발의 폐해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해야하며 개발에 대한 논리를 반드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업·축산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히려 억제하고 지원의 필요가 별로 없는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우를 범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고창선(지방자치연구회 회원)=제주도 특유의 기후여건과 전국민에 대한 식량공급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농민보호정책이 제2차 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돼야함은 당연하다. 1차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이 제외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미흡한 현실정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고자하는 의욕은 감퇴될 수 밖에 없다.

▲이근(제주관광개발연구소 소장)=개발계획에 있어 그 유형이 '하와이형'에서 '제주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최종 보고서에서는 국제적 개발과 국내적 개발방식의 혼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겉으로는 제주다운 개발을 운운하면서도 국제적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본질이 내재돼 있다.

또한 관광객의 수용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채 관광객의 수효만 책정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개발유형의 정립과 관광객의 수용능력 평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고경휴(남원읍 태흥리 독농가)=개발의 목적은 분명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으로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작성될 때까지 계획추진을 연기해야 할 것이다. 계획안에 나온 민박시설의 발상은 농촌구조와 주민의 생활상을 무시한 처사이며 개발계획은 뜬구름잡기식으로 굉장히 부실한데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작성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부문에서의 열악한 저장·가공시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강동우(제주대학교 지역조사위원회 위원 행정4)=관광개발중심적인 개발에서 지역민은 소외되고 희생만 당해온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개발은 국가가 상품가치와 정책의 실험장으로써 제주를 인식하고 있는 때문이며, 따라서 올바른 개발이란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이익에 부합되도록 이뤄진 모든 가치창조 행위'라는 대전제하에 중앙정부는 강압적 통제로써가 아니라 하향식의 분권적 방법으로 지역을 보조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과 보존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안이 작성돼야 한다.

▲손인석(제주도 과학연구소)=지하수 개발현황에 대해 수자원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동력자원연구소 등 여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하수공수보고 같은 것들이 각 기관마다 상이하다. 이것은 국력의 낭비와도 연관되는데 이러한 기초적 조사가 상이하고 미흡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수보존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리라 본다.

▲김승석(변호사)=개발계획이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올바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있어야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의 공공부분 투자에 대한 자금운영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복지의 혜택이 반드시 명기돼 있어야 할 것이다.

이 포럼에서는 개발방식·유형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 관광산업 못지않게 1차산업의 육성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점, 환경보존의 당위성, 주민주체의 점진적 제주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유와 함께 중산간 보존문제, 제주개발의 정체성, 개발방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고희갑 기자】

□ Pax Chejudona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5일과 26일에 제주국제협의회주최로 "평화와 번영의 제주"-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主題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보자는 강한 意志가 담겨진 국제적인 세미나였던 것이다.

필자는 칸트(Kant)의 「永久平和論」을 읽은 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터인지라, 勿失好機 이틀동안 始終 同세미나에 참석하여 봤다. 또한 필자는 同세미나의 대단원(denouement)이 내려지기 直前에 同세미나에 대한 요약내지 寸評을 할수 있는 榮光을 갖기도 했다.

아무튼 同세미나는 民間機構인 제주국제협의회에서 개최되었다는 점, 그리고 제주국제협회 멤버는 대개가 제주도 출신으로 육지부 내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碩學들과 도내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화의 섬"에 관한 구상이 濟州産이라는 점, 同세미나에 미국, 소련, 중국, 호주 등지에서 외국 석학들이 참석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세미나라는 점, 또한 시시각각으로 대변혁(maelstrom)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정세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데 좋은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참석했던 외국 석학들의 공통의견) 그리고 제주도의 文化가 平和志向的(Peaceoriented)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제주도야말로 "평화의 섬"이 되는데 손색이 없는 섬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同세미나에서는 여러 가지 次元에서 高見과 貞見들이 簇出하였거니와 그것들을 여기에서 枚擧하기란 벅찬 일이다.

여기서는 "평화의 섬"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提案되었던 것들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군사관계시설(핵무기 포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평화관계 정상회담 유치. △평화연구센타 또는 평화교육센타설치 △東北亞분쟁해결센타설치△평화박물관 설치. △평화민속촌 설치. △평화공원설치. △道議會및 市·君議會에서 平和決議를 선언할 것. △제주도평화의 날을 제정할 것 △외국어 교육의 강화 등 숱한 제안들이 云論되었다. 平和賞의 制定도 所望스럽다.

필자는 同세미나에 참석한 후에도 "평화의 섬"에 관하여 좀더 생각해 봤다.

그 생각은 이랬다. 평화의 類型에 관하여 살펴보면 Pax Romana가 있었고 Pax Americana가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에는 공통점이 있어보인다. 그 공통점이란 세계적 거시적 그리고 Power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릇 事物을 接近하는데 있어서 巨視的 接近뿐만 아니라 微視的 接近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平和를 추구하는데 微視的 接近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바 그 視角을 우리 나라로 돌릴 때 이른바 Pax Koreana를 想定해 볼 수 있겠다. 또한 Pax Koreana의 特性으로는 國家的 微視的 그리고 文化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Pax Koreana의 paradigm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제주도에서 찾아야 한다. 즉 Pax Chejudona에서 말이다.

본시 제주도의 文化는 平和志向的(Peace-Oriented)이라 할 수 있다.

三無精神이 그렇고 犯罪없는 마을의 모습이 그렇다. 반면에 제주도에는 4·3사건이란 비극이 있었다.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never again)라는 제주도민들의 다짐은 비장하리만큼 드높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이 가멸하여감에 따라서 더욱더 평화에 대한 希求는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Pax Chejudona의 개념은 그 內包가 多樣性과 關聯性을 띠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所重한 것으로 되어갈 전망이기 때문에 Pax chejudona에 대한 時·空的 多學問的 巨·微視的 등의 여러가지 接近方法을 통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국제협의회가 개최했던 국제학술회의는 Pax chejudona를 천착하는데 總論的 整地 作業을 수행했다고 보아진다.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평화의 섬을 구체화시키는 各論的 課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창영 행정학과 교수

□ 특별법문제 민주당 조사단과 본교교수와의 간담회 요지

민주당-'특별법 저지투쟁' 동참 약속

민주당 제주도개발 특별법 문제 현지조사단 (단장 박영숙 최고위원)이 지난 10월28일 내도, 29일 우리학교를 방문해 교수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오후 1시로 계획됐었으나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예정보다 늦게 학교에 도착해 교문앞에서 12시30분부터 연좌시위를 벌이던 1백여명의 학우들과 함께 본관대회의실까지 걸어 들어와 약 1시간이 지연된 2시부터 약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면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숙 최고위원=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관련해 도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8일 제주에 도착해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범도민회, 도당국,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특별법에 대한 여러교수님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신행철(사회학과)교수=제주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인 제주도개발 임시조치법을 만들고 국회입법화를 시도했으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총돌했었다.

제주도개발은 중앙중심적인 논리로 종속적으로 다뤄졌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맞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안한 것이다.

▲서경림(법학과)교수=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법이라고 하면 국가가 국민으로 부터 무엇을 박탈한다는 의식이 박혀있어 거부감부터 드는 것 같다.

사법전공이어서 특별법 제정에 직접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주위의 권유도 있고 법학도로서의 보람도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

여기서는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문제를 몇가지 제기하겠다.

첫째, 입법과정의 문제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내 각 직능대표 즉, 도민이 참여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도민에게서 분리된 것도 아니고 도민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겨오는 것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주요동기이다. 이왕 개발할 것이라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대연(사회학과)부교수=특별법은 무엇을 근거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 정도의 판단기준을 말해보겠다.

첫째,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문제이다. 60~70년대의 정부 기본시책은 산업화, 국가안보, 국민총화 였는데 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 개입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각 지역사회나 한 기관의 자율성 극대화 △전체적인 통합메카니즘 개발 등에 주력하고 적극적 개입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1960년대부터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한 발전의 결과로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서는 해방됐으나 상대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다. 성장의 속도가 가치관의 변화보다 앞서 가치혼란의 무규범상태가 돼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설정 문제인데, 지역주민의 이익과 국가이익간의 갈등에서 국가전체이익보다는 지역주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

넷째, 제1차 종합개발계획의 결과 개발이익이 환수가 기대이하로 내려가고 산업화 개방사회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돼 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제주도의 개발방향을 설정해 보겠다.

정부의 역할은 과다계획을 피하고 관리자, 후견자의 입장이 돼야하고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한 국가이익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본참여 경영, 유통과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 시안 1조에 설정된 목표는 2조이하의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으로 제주개발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이익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급진적 시한부적 개발보다는 지방정부의 정책차원에서 점진적 지속적 개발이 돼야 한다.

△윤양수(법학과)부교수=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80년 9월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재검토 용역결과에서이다. 도 행정당국이 아니라 KDI에서 나온 특별법의 필요성은 현행법의 문제점 파악조차 없고 제주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도 없이 제기된 것이다.

특별법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신속·정확하게 개발하기 위한 법이다.

제주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관광지이므로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해온 제주도 개발의 속도도 빠른데, 더 이상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은 무리이다. 관광개발은 점진적으로 해야지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과 역효과를 초래한다.

무분별한 중산간 개발로 제주도민의 식수원인 지하수가 오염·고갈되고 있다.

관광개발의 한계, 수용의 한계를 생각하고 적절한 속도로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은 오늘날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첫째,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균형복지추구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으로 환경보존 및 오염의 예방, 공해추방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특별법은 이런 사항을 소홀히 하고 있다.

특별법은 제주도에만 국한해서 앞으로 10년간 시행될 한시법이다. 그런데 이법을 상당수의 도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입법을 강행하려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충석(행정학과)부교수=최근 2년동안 특별법 시안은 5개가 나왔는데 5개모두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행위 지역제한이다.

◇지난 10월29일 우리학교를 방문한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반에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도시안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도시 바깥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특별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우리 제주도의 경우 중산간 지역이 개발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산간 땅중에서 최소한 60%이상이 외지인 소유이다. 국토이용 관리법의 용도행위 제한을 배제했을 경우 개발의 주체는 땅가진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이 특별법 대로라면 도지사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다.

재벌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변방의 관선지사인 제주도 도지사가 재벌을 이길 수 있겠는가.

계층간의 격차문제, 재벌문제, 땅문제가 우리시대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다.

특별법대로 집행된다면 이시대가 극복해야할 이러한 문제들은 그대로 제주도에 이전시켜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분명하다.

▲윤정수(해양학과)부교수=제주도 지하수 개발은 1970년대부터 이뤄져 20년 밖에 안됐지만 고갈현상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서는 6㎞까지 해수가 침투되고 있다.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중산간 지역에 골프장등 위락시설이 만들어 지면 지하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중산간에 있는 4백개 정도의 기생화산은 지하수 매장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생화산을 깍아내고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지하수의 오염은 당연한 것이고 심각한 물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한석지(사회교육과)조교수=6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주개발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자본과 권력에 의해 방향지워지고 주요산업이 선택됐었다.

앞으로 만들어질 법에는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지역주민 보호원칙, 산업균형이 원칙등 최소한의 개발상식이 적용되는 계획이나 법이 돼야한다.

지역주민들의 특별법 반대 움직임을 '지역이기주의' '배타주의' '반체제'등으로 매도 탄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제주도민은 지역민들을 위한 법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께서는 일부 지식인의 의견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한다.

▲이청규(사학과)부교수=특별법의 목적 제1조에 보면 제주도의 각종 천연자원을 보존 이용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를 만든다고 돼 있다.

우리 제주도는 물론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천연자원에만 중점을 둬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인문자원이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파괴됐다

국제적인 관광지인 발리나 오끼나와 등에서는 인문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 신시가지, 중문관광단지 등은 사전에 인문자원 조사도 없이 진행됐다.

건설부에서는 개발만 앞세워 문화자원의 훼손만을 일삼고 보존, 이용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박영숙 최고위원=여러 교수님들의 의견 잘 들었고 주민들, 범도민회측, 도당국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당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한편, 민주당 현지 조사단은 지난 10월 28·29일 양일간의 현지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특별법 제정은 제주도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할 때까지 보류돼야 한다. △민자당이 만일 도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강행처리하고자 할 경우 민주당은 당력을 기울여 이를 저지할 것을 건의한다. △특별법 문제의 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여당측에 요청하고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

【김미진기자】

신임 교무·학생처장 인터뷰

교과과정 개편시 교양교과목 대폭 늘려야

교무처장 고남욱교수 경제학과

지난 10월28일 신임 교무처장 고남욱(경제학과)교수를 만나 앞으로 교무행정을 어떻게 펴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번 2학기에 폐강된 교과목만 해도 무려 1백36개나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은 '89학년도에 개편돼, 그 이전의 교과과정보다 20%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 후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방침을 갖는다기 보다도 다음 교과과정개편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더욱 향상된 교과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말해 다음 교과과정 개편시에는 교수 중심적인 교과편성에서 벗어나 좀더 학생들의 구지욕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돼야 한다고 본다.

△'89학년도에 작성된 교과과정이 내년에는 개편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대의 조류에 맞는 교양교과들이 타대학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대학은 4년마다 교과과정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과신설등으로 교과과정개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개편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교과과정 개편시에는 그간의 학문발전추세를 신중히 검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교양교과목들은 종전의 편성과는 달리 학문영역간에 균형있는 교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교양교과목을 학문영역별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폭넓은 교양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

△강의시간표가 대부분 교수들의 편의위주로 짜여져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선택을 할 수 없다고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가.

—교양분야의 강의시간표는 교무처(수업과)에서 편성하고 전공교과는 각 학과에서 편성하고 있다. 학기초마다 일정한 수업시간표 편성기준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각 대학에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수업시간표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특정의 그룹이나 교수들의 편의를 위주로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지는 않고 있다.

△학칙에 의하면 우리대학에서도 조기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 어떻게 가능한가.

—특별시험학점취득제나 계절학기등을 통해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해 조기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평점평균이 4.0이상일 경우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계절학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학점특별취득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학기만 휴학하고 역학기 복학이 가능한지.

—학점부족등 교과이수를 위하여 부득히 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당시의 학기에 관계없이 역학기 복학을 허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학생이 한 학기만 휴학하고 역학기에 복학한다는 것은 교과과정 이수상 불가능하다.

△육지부 대학에서는 C학점까지도 재이수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D학점마저 재이수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행정편의를 위한 것은 아닌가. 또 이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88학년도에 학칙개정을 하기전까지는 D^+의 성적까지 재이수가 가능했으나 '89학년도 2학기부터는 F등급 교과목만 재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돼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강좌개설을 할 수 있는 강의실 부족등이 해소되고 부작용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려한 후 교과과정 이수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취업정보 데이타뱅크화 시급

학생처장 문두길교수 원예학과

"단 하루를 하더라도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피력하는 신임 학생처장(문두길교수 원예학과)을 지난 10월24일 학생처장실에서 만났다.

△학원침탈이나 고규형학우 추락사건 당시 학교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정부의 학원안정화대책방안의 타당성과 그 진의에 대해.

—내가 알기로는 총·학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학원안정을 위해 이런저런 상황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것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든가 시행해야 한다는 지시는 없었다고 실무진들로부터 들었다.

학원자율화과정을 뒤돌아보고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자율화 시대이므로 학생·교수·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적된 문제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지 외부에서 지시한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그전 보다는 좀 덜하지만 학생 회관 등 교내 요소요소에서 동아리 문화패들이 두드리는 각종 풍물소리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화시킬 대책은 없는지.

—그것들은 대학문화의 일부분이다. 허나 공부를 하고 있는 다른 학우들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러한 동아리의 대표학생들과 협의하에 장소를 옮긴다거나 연습시간을 방과후에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우리학교에 취업대책위원회가 있기는 있는가? 있다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턴사원제 실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취업대책위는 본부에 총장과 처·국·실장으로 구성돼 있고, 각 단과대학에는 학장, 교무·학생과장, 서무과장으로 꾸려져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학생들의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 11월초순경에 기업체와 관련이 있는 각 대학의 교수들을 선발해서 기업체를 순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취업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컴퓨터에 입력시켜 여러가지 취업정보에 대한 데이타 뱅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취업대책은 학생처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졸업예정자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평상시부터 실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서점·복사실의 직영화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84학년도에 서점을 직영화 하자고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자운영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서점을 직영화하는 곳은 없으며 말처럼 흑자운영을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우리학교에 복사실이 열군데 있는데 복사는 복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운영할 때보다도 기계수리비가 많이 지출된다.

직영했을 때 현재보다 서비스가 좋아 진다거나 흑자운영이 된다면 직영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기에 지금 직영화 할 생각은 없다.

【繁】

오는 13일 정책설명회 개최

차기 총학생회장 '무투표당선 부작용 줄이기 위해'

이영심학우도 차기 여학 회장에 무투표당선

각 자치기구의 선거등록이 지난 10월31일까지 모두 마감된 가운데 총여학생회에 단독 입후보한 정:이영심(국문3)·부:임희정(수교2) 학우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경선을 치루게 되는 인문대등 5개 자치기구의 입후보자들은 선거막바지까지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11월4일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한 총대의원회 정부의장선거에는 김재성(정,법3)·오성탁(부,과교3)학우조가 단독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3개조가 출마한 농과대와 2개조가 출마한 인문대등은 아침마다 선전 홍보전을 벌이는가 하면 각각 천막을 운영해 공약 및 정책을 설명하는 등 선거전이 치열하다.

경선을 실시하는 각 단과대의 투표일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11월6일(8110강의실) △법정대=11월7일(2108강의실) △경상대=11월6일 △농과대=11월6일 △해양과학대=11월8일 △야간강좌부=11월6일.

아울러 85년 총학생회 부활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된 윤철수(무역3)·홍상범(화학3) 학우 조는 학우들이 자칫 총학생회에 무관심해질 것을 우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에 들어갔다.

윤 철수조는 지난 11월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교문앞을 비롯한 교내 일원에서 당선인사를 하며 △각종 교내외 문제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설명을 위해 천막운영을 하는 한편, △13일경 야외음악당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 이외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사범대, 자연대, 공과대, 동연, 여학 등의 당선자들도 무투표 당선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 당선자들은 천막운영 및 학우를 방문과 함께 11월6일을 전후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학우들에게 자치기구 사업에 대한 협조를 호소할 계획에 있다.

여학생회 당선자인 이영심 조는 11월7일과 11일 두차례 유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광장

교수동정

▲고유봉(해양학과)교수=지난 11월1일 부터 2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해양학회 주최 '91년도 추계연구발표회'에 참석해 "아열대 산호초 주변의 동물 플랑크톤조성과 현존량"에 대한 논문발표. 2일 있었던 정기총회에서는 한국해양학회 이사에 피선.

▲방익찬(해양학과)조교수=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해양학회 주최 '91년도 추계연구발표회'에 참석해 "대만난류의 기원에 대한 수치모델결과"에 대한 논문발표.

▲오윤근(해양환경공학과)조교수=대한 환경공학회와 한국 수질보전학회 이사인 오교수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해양학회 '91정기총회'에서 한국해양학회 이사로 피선.

▲강순선(농화학과 교수)도서관장=오는 11월8일부터 3일간 전북대학교 도서관에서 열리는 '제2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장협의회'에 참석.

▲고정삼(농화학과)교수=지난 11월1일부터 3일간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에서 열린 '한국 농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 참석.

▲유장걸(농화학과)교수=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서울 원자력 연구소에서 열린 '폐기물 처리와 동위원소 안정성에 관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에 참석.

▲윤창훈(식품영양학과)교수=지난 11월2일 동국대에서 열린 '제60차 한국 농화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

▲김철수(수학과)조교수=지난 11월 1일 인하대에서 열린 '91한국 통계학회 추계학술논문 발표회에 참석.

▲현진오(수학교육과)교수=지난 11월 1일자로 사범대 과학교육연구소장에 임명됨.

학과소식

사교'Civics제'

▲사회과교육학회(학회장 김정희 3)주최 '제1회 CIVICS제'가 지난 11월2일 오후 3시 3323세미나실등지에서 있었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정치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정치교육" △경제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경제교육" △지리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지리교육" △사회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사회,문화교육" △역사분과="사회과 교과에서의 역사교육" 등의 분과 발표회와 '동문·재학생의 어우러짐의 마당'이 펼쳐졌다.

제24회 축산의 날

▲축산학회(학회장 김상현 3)주최 '제24회 축산의 날'이 지난 11월2일 4130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날 학술제에는 김문철 부교수의 "뉴질랜드의 초지와 연구사업", 강태홍박사(제주시험장장)의 "제주도 축산업과 시험사업"등을 주제로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강연이 끝난후 축산학과 동문들과 재학생간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도 열렸다.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12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음악학과주최 '제8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12일 오후 7시 문예회관대극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음악학과는 지난 11월1일에는 2동 중강당에서 '제8회 졸업연주회'를 연 바 있다.

초청강연

"태평양 시대와…" Jemes shon교수초청

▲Jemes shon교수(하와이주 하원 보건위원장)의 "태평양 시대와 학술 문화교류"에 관한 강연이 지난 10월23일 오후 2시30분 영어교육과(학과장 우상균 조교수)주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323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제주양란의…' 농학과학생회 주최

▲'제주양란의 산업화에 대한 방향제시'라는 주제하의 강봉조씨 (69년 농학과졸 제주난원사장) 초청강연이 지난 11월1일 오후 2시 농학과 학생회(회장 황기봉 3)주최로 4312강의실에서 있었다.

공연·전시

'한라산'마당극 '개발바람 오름너머'

▲놀이패 '한라산' 열번째 마당판 '제5회 우리문화한마당'

△공연제목=개발바람 오름너머

△장소=제주 YMCA 3층 강당

△시간=11월9일 오후 4시 30분. 7시, 11월10일 오후 4시. 7시, 11월11일 오후 7시.

아라벌 산수회 '수석전' 오는 6일부터 4일간

▲교직원 직장동호인 모임인 아라벌 산수회(회장 양중해교수 국어교육과)주최 '제10회 수석전'이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9일까지 시내 난석다방(농협도지회 남쪽)에서 열린다.

호우회'돼지들의 산책' 7,8일 문예회관 소극장서

▲호우회(회장 이승철 통신공 2)의 네번째 정기공연 '돼지들의 산책'

△원작=김용락

△기획=손경국

△연출·각색=이창훈

△일시 및 장소=11월7일 3시·6시(2동 중강당), 11월8일 4시·7시(문예회관 소극장).

동아리 소식

CEF공개강좌

▲시사영어연구회 주최 공개강좌 'Let the Game begin'이 지난 11월1일 오후 5시 3323강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강좌에서는 이상아(식품영양 3), 김의성(가정관리 1), 양익준(기관공 1)학우가 연사를 맡았다.

게시판

오성진 학우 연행돼 지난 10월19일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로 수배중이던 '90학년도 법정대 학생회장 오성진(행정 4)학우가 지난 10월19일 오전 제주의료원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오학우는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디학과학우 3명 입상 제22회 전국대학미전서

▲산업디자인학과 소현경(4), 허은숙(4), 김현애(4)학우등 3명이 중앙대학교 주최 '제22회 전국대학미전'의 시각디자인, 환경 및 제품디자인, 공예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세 학우의 작품은 10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회장소인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됐다.

금요명화 감상회

11월 8일="인터걸" 11월 15일 "마루타" 11월 22일 "문스트럭" 29일 채플린 시리즈 제3탄 시티라이트(City Light)

시간=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어학연구소(사범대 2층)

농협창립30주년 기념 저축 신상품 안내

一石三鳥 예금 예금하나로 3가지 효과

■ 수익성 정기예금의 월이자가 자동적금에 복리식으로 연결, 최고의 수익률 보장, 37개월 44.22%(월 14,34%)

■ 보장성 재해 사고시 정기예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

■ 편리성 "하나로 종합통장"하나로 모든 기능 자동처리

-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월부금으로 매달 자동이체
- 가입과 동시에 소액자금(20만원) 자동대출
- 각종 예금의 이자, 월급여, 연금, 배당금 등의 자동입금
- 대출원리금, 공제료 및 전기료, 자동차세등 각종 공과금의 자동납부

※농협특별저축상품—내고향적금, 꿈나무적금, 이자로보험예금, 근로자장기저축

취급업무

■ 은행업무·공제(보험 업무)·지도사업 장학사업·국고 및 각종 공과금 수납 (타은행 송금) 현금자동지급기·수입인지 무인판매대 설치

편리한 은행 여러분의 농협 제주대학교 출장소 ☎56—1119, 54—2381

◇ 취업·부직희망자를 찾습니다 ◇

직 종	인 원	업 체	부직/취업	보 수	시 간·자 격
관 리 직	남 1	대명인쇄사	계속취업	월35~40만원	오전9~오후6, 가족수당+생일축하금, 상여금200%
경 리	여 1	제 주 택시노조	계속취업	월25만원 (일당1만원)	오전9~오후5,상여금300%
인테리어 디자인관련	여 1	신제주미건내 장건축백화점	계속취업	월35만원	오전8시30분~오후6시 (미술학과·산업디자인학과)
Bit컴퓨터강사	여 1명	Bit컴퓨터	계속취업	월32만원	오전10시~오후8시30분(6개월과정 이수학생 4학년 여)
도서취급 (운전원)	남 1명	학동도서	계속취업	월50만원	운전면허 1종 소지자
매장근무	남 여 각1명	엘칸토	계속취업	남(월)50만원 여(월)36~40만원	정기승급제, 결혼자(전세자금), 교통비, 식비지급
연 구 직	남 1	청풍종묘	계속취업	월50만원	오전9시~오후6시(농화학, 원예, 생물학과)
토산품매점	여 1	자연사박물관	계속취업	월평균50만원	(야간학생)여
경 리	여 1	경성상사	계속취업	본인과 결정	오전9시~오후5시
지도교사	여 2	아이템플	계속취업	월35만원	오전8시~오후6시(교원이수자)
학원강사	여 1	수재속셈학원	계속취업	월30만원	오전9시~오후7시(중식제공)
서 빙	여 1명	윈첼도너츠	부직계속가능	월25만원	오전9시~오후6시
의류판매보조	여10	신성백화점	부직계속가능	시간당1500원	10月21日이후(용모단정한 여학생)
배달보조	남 1	동아석유	지금~92년4월	월35만원 중식제공	오전8시~오후6시
영업보조	10	아폴로제주총판	부직계속가능	상담후 결정	
회원모집	제한없음	제주Vip	3개월	한건당17000원 30건 이상시 10만원 추가	
탐라LPG 가스충전	남 1	탐라LPG 가스충전	계속가능	월35만원이상	격일근무

남·여 아르바이트생모집

커피문화의 신선한 충격
Esperer coffee shop제주에 상륙
엄선된 원두와 뛰어난 향

커피의 세대교체 선언
Esperer제주점 탄생
이태리, 미국, 브라질, 유럽의 커피맛을
이제 제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품격주의를 선언한 Esperer
이 가을
Esperer와 당신과의 만남은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새로운 커피문화를 창조하는

COFFEE PLAZA 에스페레

☎58—0053~4

북한자료실 있는 줄 몰라
도서관 성의있는 행정 펴주길

지난번 제대신문에 실렸던 '북한자료실'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도서관에서 우리의 열렬한 성화에 못이기어 '북한자료실'을 개설했으나 두달여동안 그 자료실을 이용한 이가 3명에 불과하다는 기사였다.

난 북한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어 약 두달동안 시내의 몇 서점과 관심있는 학우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찾았었다. 그러나 내가 자료를 부탁했던 학우중 누구도 도서관에 북한자료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고, 오히려 왜 우리 학교에는 그런 곳이 없을까 한탄했었다.

지난번 제대신문을 보고 놀란 이는 나만이 아닐 것이다.

혹 도서관에 잘 안 다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가 해서 다른 학우들에게 물어봐도 다 모르겠다는 말이었다.

도서관에서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소리없이 문을 연 '북한자료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당연히 도서관측에서는 북한자료실에 대해 학우들에게 홍보를 했어야 한다. 하다못해 도서관 내에 북한자료실이라는 것이 문을 열었다는 안내문이라도 붙였어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알리지도 않고서 나같이 필요한 사람이 정작 사용하지 못하는 자료실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자료실은 자료실답게 폭넓은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 『로동신문』이외에도 당지, 북한 출판물, 사회주의 노선 관계문헌, 소설등 문학작품, 문화, 각종 논문, 통일안에 대한 연구, 월북작가의 논문및 연구서등을 비치하여 읽을 것, 볼 것이 많은 자료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왕이면 도서관에 새로 비치되는 책들을 한달에 한번 제대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실었으면 좋겠다.

좀더 도서관의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개방이 되도록 도서관측의 성의있는 행정을 바라며, 앞으로 학우들의 도서관으로 정립시킬 의무가 학우에게 있음도 상기하고 싶다. 〈송은숙 국어교육과〉

발전기금모금운동 왜 방관하나
우리가 주체로 나서자

효율적 연구와 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대학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취지아래 올 3월부터 '대학발전기금조성운동'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몇차례 신문광고란에 제대 전 가족의 참여를 호소하는 문구가 나왔지만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혹은 단체)이 몇 안되고 기금액수도 적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신문에 몇차례 광고를 냈다고 해서 홍보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다시말해 발전기금 조성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고 그에 따라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결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이 기금모금운동이 우리 학우들을 위한 것이라면 총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할 것인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홍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금의 접수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몇백 혹은 몇천원의 용돈을 절약하여 기금을 내려해도 접수장소에 가기가 거북스러울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와 각 단대에서 모금운동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고 모금함을 단대별로 일정한 곳에 설치, 혹은 접수장소를 만들어 구체적인 모금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학우들이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라면 권리만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학교발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대학발전기금조성운동'에 모든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다시한번 총학생회와 각 단대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만 줄인다. 〈김문기 국어국문학과〉

독자의 소리

濟大新聞은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하니 원고지 5매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선거입후보자 교표 단 모습 좋아
지속적 교표달기로 애교심 향상을

요즘 각 단대가 선거열기로 한창 뜨겁다.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장차림을 하고 선거운동에 열심히들 뛰고 있다. 말끔하게 차려 입은 모습들 하며, 특히 인상깊은 것은 왼쪽 가슴의 우리 학교 교표였다.

개인적으로 보기가 좋았다. 그런데 교표를 달고 다니는 일이 요즘처럼 선거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것도 특정한 학우들만 달고 다녀서 매우 안타깝다.

1학기초에 교표를 달고 다니는 풍토(?)가 있었는데, 얼마 안돼 신입생들을 중심으로한 교표 달기도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우리학교의 '제대신문'에서도 애교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교훈·교표·교가·상징물에 대해 알려준 바 있지만 아직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훈이 무엇이고, 교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학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지면을 통해서 다시한번 교표에 담긴 뜻을 알리고 싶다.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지킨다는 방패를 바탕으로 하여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의지를 나타내는 펜과 책이 조화를 이루어 도안 되었고, 이 이상과 의지의 실현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월계수 잎이 아래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학교사랑'을 외치며 학교 교표 하나없이 지내는 대학생활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자.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진정으로 단과대학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를, 더 나아가 민중을 위해 열심히 일할 후보를 뽑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유철훈 농화학과〉

학우권익위해 일할
진정한 대표 뽑자

쌀쌀한 날씨속에서 요즘 학생들의 열기는 부쩍 더해가고 있다. 여기저기 붙여진 공약사항들, 천막을 쳐 놓고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들, 선거철임을 확실히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선거에 있어 단독후보인 경우에는 사실 흥미를 상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약사항을 내세우고 선전문들을 붙여도 '어차피 당선될텐데'하는 생각으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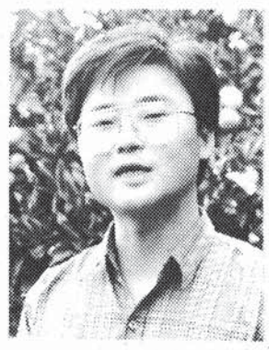
물론 단독후보인 경우라도 우리는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해에 그러한 약속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경선으로 출마하는 경우 우리는 좀더 신중하게 후보들을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데 경선인 경우 친분관계를 따지면서 안면이 있다고 해서 공약사항등은 뒤로 한 채 선입견을 갖는 학우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사회에 있어서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나 우리 학우들의 이러한 안일한 모습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 단대, 아니 우리학교를 위해 우리는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야 하는데 말이다.

양복을 입고 떼지어 몰려다니며 인사하는 사람들로 괜히 어색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서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고 우리의 소중한 한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누구의 것도 아니며 우리 자신들의 일임을 자각하고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지성인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김설 사학과〉

사람들 사법고시 합격한 전호종 동문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결실있어"



지난 10월30일 총무처가 발표한 제33회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한 전호종 동문(법학과 85년 졸·31세)을 11월2일 오후 그의 아라동 집에서 만나보았다.

귤을 따다가 반갑게 손을 내미는 그에게서 선배라는 포근함이 우선 기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대학 4학년때부터 사법고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그는 아직까지도 합격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간의 과정이 길고 험난하여 방황도 많이 했으나,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소감을 피력하는 그는 "어려운 집안환경에도 불구하고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의 보살핌과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덕분에 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그간의 고독한 투쟁이라 할 수 있는 날들이 힘들었음을 겸손히 말했다.

그가 입학할 당시에는 법학과가 부활된 첫해라서 그런지 사법고시반도 없었고 고시에 대한 정보도 매우 빈약했다며 고시에 응시할 결심을 처음 굳힌 것은 대학 3학년 재학시절이었다고 한다.

대학 재학시절 당시 겨울방학 때에는 '관음사'에서 공부를 했다는 그는 "눈이 많이와 부식운반이 어려울 때에는 무릎높이 만큼 쌓인 눈길을 헤쳐 산천단까지 부식을 가지러 다녔던 적이 있다"며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겼다.

우리나라의 법현실에 대해 전 동문은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을 볼 때 사회규범이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좋은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법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법이 최후의 보루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의 권위가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러기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현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휴학중인데, 앞으로 실무와 공부를 함께할 수 있는 판사직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대학시절 영어공부를 위해 TIME반에서 틈틈히 활동을 했던 전 동문은 "학업엔 왕도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지만 한가지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걸 절제해야 한다"고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학교 고시지망생들이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는 이유가 외국어에 대한 취약점때문이라며 외국어만 보완한다면 앞으로 더욱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후배들의 분발을 당부하면서 "시험에 못지 않게 건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체력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선배로서의 조언을 덧붙인다.

아울러 그는 후배들이 2, 3학년때부터 좀더 진지하게 준비를 한다면 고시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일이 특별한 이에게만 결실이 맺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실히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지방대라고 해서 힘든 것만은 결코 아니다"며, "제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訓】

교내 가로등 시설 미비
야간보행 불안하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또는 강의실에서 공부하다 귀가하는 학생들이나 야간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야대 학생들이 교내가로등 시설미비로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여럿이 떼를 지어 다닐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 여학생 혼자, 또는 두서너명이 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할 때쯤이면 안그래도 날이 금새 어두워지는데 듬성듬성 놓여있는 가로등 불빛을 받기가 어렵고 혼자 걸어 내려올 때 쯤이면 주위가 너무 어두워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너무 컴컴해서 두려움마저 생긴다.

또 야간에 교내에서 주행하는 차들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데도 한몫을 한다.

이러한 것은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져있는가 하면 저녁엔 제때 가로등이 켜져있지 않아 그나마 있는 가로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설들이 제때에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로등을 더늘리는 것이 제정상 어려움이 있다든가 한다면 그나마 있는 가로등이라도 제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덧붙여 우리학교에 지원되는 전력비용이나 그외 수도비용등이 6개월이면 바닥나 추가예산을 책정해야 할 정도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텅빈 강의실의 형광등, 아무도 없는 화장실 세면실에서 넘쳐나는 수돗물, 적시 적소에 필요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대부분이다.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김미경 행정학과(야)〉

대학인의 양식을 찾자
자유열람실 주변 너무 소란

우리학교에는 개개인의 조그마한 자아개선들의 노력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론적인 무게를 띤채 남아있는 문제들이 몇가지 있다. 몇번 제대신문에 기재되어지고, 공공연히 이야기도 되어왔지만 안타까움으로 자꾸 떠오르는 일들이다.

그중의 하나가, 도서관 사용시 학생들의 태도이다. 중앙도서관 로비에 열람실이 생긴 이후로는 그 공간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열람실을 구획지어 놓은 칸막이 바깥쪽에서의 학생들의 잡다한 소리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지하매점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유난히 큰 목소리들, 자지러지는 웃음소리, 다리에 힘이 꽤 들어간 듯 느껴지는 신발소리 등등….

물론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의 의미선택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테고, 나같이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투고까지 하는 요란을 떨고 있느냐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탁 트여진 도서관 로비열람실에서 공부를 해본 학생이라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두번 정도는 해보았을 것이다. 대학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도서관. 신체에서 심장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대학에서 역시 도서관의 역할은 높이 평가된다.

과연 이 최고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곳에서 대학사회의 골치거리로 대두되는 이기주의의 폐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모두 이성의 날카로운 촉각을 곤두세워 고민해 보아야겠다.

〈장신옥 사회학과〉

아라·我羅

○…조금은 자제를

풍물패 동아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일이 또 발생.

우리는 그동안 밤과후 학생회관내 동아리방에서 울려퍼지는 북소리·장구소리등 풍물패소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했는데.

며칠전 야간강좌부 모과학우들이 신문사로 찾아와 학생회관 내에서 울려퍼지는 풍물소리로 강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이를 좀 자제시켜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

주경야독하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야간 강좌부 학우들을 위해 아라인이여 조금은 자제를.

○…교직원인지, 스포츠맨인지

도서대출실을 찾은 아라子, 점심식사시간도 아닌데도 직원이 한명도 없음에 당황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더욱 아연실색.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던 지난 1일에 전교직원들이 일자리를 뒤로하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행정마비 현상까지 일으켰다고.

체력은 국력이라 일사불란한 행동까지는 좋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명도 남지 않고 나갔다는 건 너무한 일 아닌지요? 체육대회 말고 학교발전을 위한 일에도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는게 어떠하오이까.

○…배고픈 원시인(?)

사법대앞 잔디밭에 원시인 출현.

사도상 아래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 아라子 알아본 즉, 세명의 모학우가 둘러앉아 메뚜기를 구워먹고 있는 바.

아무리 배가 고팠다고 억지를 쓴다 할지라도 대학생이란 자들이 더욱이 사도상 앞에서 이런 몰상식한 꼬락서니를 보여도 되는건지. 탑에 새겨진 '홍익인간'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결코 그 자체에 머물지 않음을 왜 모르오리까.

○…학생회관 사용수칙

학생회관 1층로비에서 밤마다 플랜카드를 만들기 위해 책상을 몇개씩 갖다 붙여놓고 긴 천을 매어 글자를 쓰는가 하면 다음날 아침 늦게까지 페인트를 말리느라 늘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같은 학교기물 독점행위를 언제까지 지켜 보아야만 할 것인지.

물론, 써야할 플랜카드는 많고 마땅한 공간이 없어 그런줄은 알겠으나 학우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학생회관 한가운데 그런 것을 설치해 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페인트까지 바닥에 흘리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 아닌지,

어느 개인의 안방이 아니라 다같이 쓰는 학생회관인 것을 인지하여 조금씩 자제하고 양보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소.

○…스탠드바 따로 없는 듯

한밤중에 쿵쾅대는 악기·노래소리에 취해 아라子 그 진원지를 추적해보니.

언제부터 우리학교 구내식당에 스탠드바가 생겼는지 식탁위에는 술병들이 널려있고, 벌겋게 얼굴이 달아오른 학우들이 무엇이 그리 좋은지 희희낙낙.

학과축전행사 내용이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특별법저지 투쟁이다, 개혁이다 하는 실정에서 남의 이목도 좀 생각하셔야지.

학생회관 사용수칙

SAMSUNG Electronics

꿈이있는 도전의 세계—휴먼테크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 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세계사의 주역'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 —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